

06

JUNE 2026
vol. 304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Watches &
Wonders 2026



Cartier



ETERNAL N°5 NECKLACE IN WHITE GOLD AND DIAMONDS.



COLLECTION N°5

CHANEL

FINE JEWELRY

Crafting emotions

One invention at a time

아브라함-루이 브레게의 혁신적인 발명은 위치메이킹의
예술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가 추구한 완벽함은
오늘날에도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줍니다. 이 위대한 유산을 기념하며,
트래디션 7037 <Tradition 7037>을 선보입니다.

BREGUET

1775



Contents

- 08 **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10 **_SELECTION** 구조적인 재킷과 유연한 실루엣의 쇼츠, 클래식한 레더 액세서리와 포인트 워치 & 주얼리까지.
- 11 **_GRAND STATEMENT** 별도의 레이어 드는 필요 없다. 단 하나만으로 확실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빅 팬던트 네크리스.
- 13 **_DYNAMIC HUE** 블루와 그린 다이얼 워치는 동시대 워치메이킹의 미감을 반영하며, 청량한 컬러와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동시에 전한다.
- 14 **_예술과 기술을 포용하는 동시대 극장의 몸짓** 대만 타이중에 자리한 국가극원(NTT)의 연간 프로그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체 및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나, 심을 정도로 그 대체롭고도 균형 잡힌 스펙트럼에 반하게 된다. 특히 2023년부터 해마다 봄을 수놓고 있는 '아츠 노바(Arts NOVA)' 시리즈는 이러한 면모를 잘 드러내는 시즌제 프로그램이다. 동시대 극장다운 모색 속 여정을 절로 응원하게 되는 NTT의 봄을 함께해왔다.
- 16 **_ARCHITECTURES OF TIME** '형태의 워치메이커(Watchmaker of Shapes)'이자 '공예의 대가(Master of Crafts)' 까르띠에, 까르띠에 워치의 모든 형태는 각자의 고유한 디자인에 맞는 맞춤형 장인 정신을 요구한다.
- 20 **_BIG & BOLD** 스타일리시함을 완성하는 마지막 터치.



16



26



까르띠에는 2009년 9611 MC 칼리버를 장착한 산토스 100 스퀘어톤 워치 론칭을 기점으로 산토스 드 까르띠에 컬렉션에서 스퀘어톤 라인업을 출시해왔다. 사진은 폭 39.8mm, 두께 9.08mm 스틸 케이스에 로마숫자 형태의 스퀘어톤 브리지와 검 모양 블루 스틸 핸즈가 돋보이는 산토스 스퀘어톤 워치 라지 모델. 문의 1877-4326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21



20

- 21 **_보석은 어떻게 '발견'하는가?** 반클리프 아펠 (Van Cleef & Arpels)의 지식 플랫폼, 레골 주얼리 스쿨(L'ÉCOLE, School of Jewelry Arts)이 드디어 서울에서 첫 정규 과정을 선보인다. 보석을 단순히 소유하거나 감상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지식 체계로 '발견'하는 경험이 서울에서 새롭게 펼쳐진다.
- 22 **_베자르 발레 로잔** 현대 발레의 혁신을 이끈 베자르 발레 로잔(Béjart Ballet Lausanne)이 25년 만에 서울을 다시 찾는다.
- 23 **_CITRUS HARMONY** 산뜻한 그린 & 옐로 컬러 팔레트로 공간에 경쾌한 리듬을 더하는 리빙 오브제.
- 24 **_GET THE LIST** 당신의 짝아진 소매를 꼭 채울 럭셔리 주얼 & 워치 셀렉션.
- 26 **_WATCHES & WONDERS 2026** 소재 혁신과 컴플리케이션의 진화 등 오늘날 럭셔리 워치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입체적으로 제시한 이번 워치스 & 원더스 2026 현장을 (스타일 조선일보)가 직접 취재했다.
- 28 **_GAME, START!** 올해 워치스 & 원더스에서 사뭇한 그들의 게임으로 초대한다.
- 30 **_손목 워치, 예술을 빛는 시간** 쇼파드는 이번 워치스 & 원더스를 통해 새로운 타임피스 선보이며 다시 한번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 32 **_장인 정신 속에서 파어난 또 하나의 역작**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대담한 감각의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해온 워블로가 올해 워치스 & 원더스에서 또 한번 비행 컬렉션의 새로운 얼굴을 선보였다.
- 34 **_코로나그래프, 혁신의 새로운 헛터** 워치스 & 원더스 2026에서 태그호이어는 모터 스포츠와 함께 구축해온 브랜드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코로나그래프의 방향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타임피스를 선보이며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전문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 42 **_EDITOR'S PICK** 픽서 미스트부터 립 & 치크, 프레이그런스까지. 지금 주목해야 할 이달의 뷰티 리스트.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김하얀 stylechosun.khy@gmail.com 디지털 에디터 신정민 sjm@chosun.com
인턴 에디터 김지현 sjkh00@gmail.com 디자인 나나바나스튜디오 교열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재판 덕일 인쇄 타라티피에스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퍼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MAX VERSTAPPEN



Official Timekeeper of Formula 1®

DESIGNED TO WIN

AVANT-GARDE BY DESIGN. LEGENDARY BY SPIRIT.
TAG HEUER MONACO.



THE FT LOGO, FORMULA 1, GRAND PRIX AND RELATED MARKS ARE TRADEMARKS OF FORMULA ONE LICENSING BV. TAG HEUER FORMULA 1 IS A TRADEMARK OF LVMH SWISS MANUFACTURES SA. ALL RIGHTS RESERVED.

INSIGHT



Art of Mechanism

브레게는 컬렉션 최초로 블루 톤 무브먼트를 장착한 화이트 그랑 피 에나멜 다이얼 버전의 트레디션 세컨즈 레트로그레이드 7037을 선보인다. 샷 블라스트 기법으로 마감한 메인 플레이트, 새틴 마감의 브리지, 스네일(snail) 패턴의 수공 기법으로 완성한 베젤 커버가 아우러져 우아한 시계의 미학을 보여준다. 특히 케이스 안에서 시계의 흐름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레트로그레이드의 반원은 개성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레트로그레이드 기능은 바늘이 아치형 궤도를 따라 이동한 뒤, 끝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독특한 메카니즘이다. 시각적 퍼포먼스를 갖춘 하이엔드 워치의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이보다 완벽한 타임피스 없다. 문의 02-6905-3571



Racing in Pastels

스위스 럭셔리 워치메이커 태그하이어의 DNA의 중심에는 새로 스포츠가 있다. 그 여정을 이어 올해 4월부터 새로운 포물러 1 솔라그레프 38mm 파스텔 컬렉션을 선보였다. 지난해 솔라그레프 무브먼트를 도입하며 새로운 디자인과 컬러로 출시했던 포물러 1 컬렉션이 파스텔컬러를 입은 것. 베이지, 파스텔 핑크, 그린, 블루, 파스텔 파플과 핑크 조합까지, 여름에 딱 걸맞은 시원하고 편안한 비주얼을 자랑한다. TH-플라이트 소재로 제작한 케이스는 뛰어난 경량성과 착용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워 마커에 8개의 다이아몬드를 새김해 하이엔드 워치의 품격을 자아낸다. 줄여를 손목에 생기를 얹고 싶은 이들에게 인성맞춤이다. 문의 02-3479-6021



Beyond the Horizon

에르메스가 2026 S/S 시즌 오브제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올해의 에르메스 테마인 '미지의 세계로(Venture Beyond)'를 바탕으로, 여행과 탐험의 서사를 다양한 오브제를 통해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켈리 더블 투어 브레이슬릿에서 영감을 받은 클러치, 폴리드 백의 구조적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백팩, 바다를 테마로 한 '에르메스 바다 아라 메르 백 액세서리' 등 새로운 아이템을 선보였으며, 특히 실과와 캐시미어 소재의 스카프 컬렉션은 자연과 일상의 풍경을 감각적인 그래픽으로 표현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나노 켈리 버클 디테일의 슬랑백과 유리 장인의 손길로 완성한 카자크 화병까지 더해 에르메스 특유의 장인 정신과 라이프스타일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42-6622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크리스탈 다올 뷰티 NEW 다올 프레스티지 라 마이크로-브림 드 로즈 뉴트라-로사펜타이드와 피부 진정 효과를 지닌 액티브 로즈 워터가 피부결을 부드럽게 정돈해준다. 1шт(본품 75ml, 리플 2개×25ml) 35만2천원대. 문의 080-342-9500 **마 레 리바이탈라이징** 해초를 발효한 미라클 브로스™를 함유해 피부 탄력을 케어하며, 건조한 피부나 기내에서 사용하기 좋다. 100ml 13만1천원대. 문의 02-6971-3215 **겔랑 백리르 골드 미스트**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에키나시아 추출물, 피부 보습에 효과적인 글리세린과 펩타이드 성분으로 건조해진 피부에 풍부한 수분감을 더한다. 30ml 7만1천원. 문의 080-343-9500 **발몽 하이드라 미스트** 인개처럼 고르게 분사되어 세안 직후 또는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하기 좋으며 즉각적인 보습과 진정을 돕는다. 150ml 25만원. 문의 070-4352-5203 **라프레리 스킨 케어 미스트** 케어 성분과 마이크로 오일 방울의 텍스처로 수분을 머금어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준다. 50ml 27만원. 문의 02-6390-1170 **샤넬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세럼 인 미스트** 레드 까멜리아 성분과 백사 새색 추출물을 담아 최적인 피부 컨디션 유지에 효과적이다. 50ml 16만5천원. 문의 080-805-9638 **포토그래퍼 최만영 에디터 신성임**

Cooling Veil

남다른 수분감과 광채를 선사할 럭셔리 미스트 컬렉션.



1백 년의 시간을 되새기다

올해 롤렉스는 최초의 방수 손목시계 오이스터(Oyster)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다. 이를 위해 오이스터 퍼페추얼 컬렉션 라인에서 신제품을 출시했다. 그중 오이스터 퍼페추얼 41은 롤레조 버전으로 선보인다. 오이스터 스틸을 중심으로 동형 베젤을 장착하고 크라운에는 옐로 골드를 믹스한 것. 옐로 골드 크라운 표면에는 롤렉스 왕관과 함께 숫자 100을 각인해 오이스터 탄생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긴다. 그뿐 아니라 슬레이트 다이얼의 6시 방향에는 본래 각인되었던 'Swiss Made' 대신 '100 years'를 새겼으며, 마넛 트랙의 매 5분 간격과 브랜드명 역시 그린 컬러로 프린트했다. 100m 방수를 지원하며, 약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칼리버 3230으로 구동한다. 문의 02-6370-4298



Into the Wild

미국 애리조나의 광활한 자연을 배경으로 선보인 몽클레르 그레노블 2026 S/S 컬렉션 캠페인은 붉은 암석과 사막 산악 지형이 어우러진 투손 미운틴 파크에서 탐험 정신이 깃든 아웃도어 룩의 완벽한 조화를 엿볼 수 있다. 다양한 기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풍-통기 기능을 갖춘 소재와 디테일이 적용된 아웃도어 룩에 선인장, 아가베에서 영감을 받은 보태넬 프린트와 자연을 담은 컬러로 컬렉션의 생동감을 극대화했으며, 이를 몽클레르 특유의 정교한 레이아웃으로 제안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브랜드 앰배서더인 프리스타일 스키어 구스 켄워시(Gus Kenworthy), 프리라인드 스키어 리샤르 페르망(Richard Permin), 그리고 모델이자 하이킹 애호가 미아 리건(Mia Regan)이 참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 및 공식 홈페이지(moncler.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030-8321-0794

(위부터 차례대로) 미국의 배우이자 소설가 트루먼 카포터의 (인 콜드 블러드(In Cold Blood)) 초판 커버에서 영감을 받은 다올 맨 북 토트 스트랩 백, 36×31.5×14cm, 가격 미정 다올, 문의 02-3280-0104. 상단 스트랩에 아이코닉한 T 타이리스 장식을 더했으며 부드러운 카프 스킨 소재로 제작한 T 타이리스 호보 백, 39×40×17cm, 3백52만원 토즈, 문의 02-3438-6008. 리나일론 캐비언 소재와 시파이노 가죽 트리밍으로 장식한 디플백, 45×27×23cm,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1. 박력한 수납공간과 프린트 버클 디테일이 특징인 허그 숄더백, 38×39×15cm, 가격 미정 페라기오, 문의 080-001-1927 **포토그래퍼 최만영 에디터 신성임**

Black Big Bags

이번 시즌의 키 액세서리, 빅 백.



EXHIBITION

그래픽으로 문화를 설계하는 크리에이터, 베르디

지난해 우려 반세기 만에 월드 엑스포가 다시 열리면서 새삼 주목받은 일본 간사이 지역의 대표 도시 오사카에는 스트리트 컬처 신에서 꽤 유명한 피자 가게가 있다. 이 도시 출신의 그래픽 아티스트 베르디(VERDY, b. 1987)가 기획·프로듀스한 헨리스 피자(Henry's PIZZA). 도심의 럭셔리 웰스 감성으로 유명한 새 호텔 파티나 오사카가 인근에 생겨났는데, 마침 엑스포 관람차 이곳에 묶으면서 베르디의 브랜드 파워를 실감하게 됐다. 우라카미 다카시 같은 동시대 스타 아티스트를 비롯해 미술, 패션, 음악, 스트리트 문화 등 서로 다른 영역을 가로지르며 전개된 그의 다채로운 협업 행보 덕분에인지 지드레코, 블랙핑크 제니, 파멜 윌리엄스 같은 셀럽도 다수가 유명세를 단단히 댔는데, 베르디의 팝업형 굿즈 존도 있는 가게다. 현재 서울 잠실 월드컵에 자리한 롯데뮤지엄에서 진행 중인 베르디의 개인전 (아이 빌리브 인 미 Believe in Me)에서도 대다수 굿즈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재인고를 기다리는 이들이 다수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90년대 일본 우라하라(Urahara) 문화와 하드코어 펑크 룩, 스케이트보드 문화를 토대로 자신만의 그래픽 세계를 구축한 베르디는 2008년 디자인 컬렉티브 'VK DESIGN WORKS'를 설립했으며, 전시장이 보여주듯 불확실성 속에서도 스스로의 감각을 고수하며 세대적 감수성으로 녹여낸 인물. 이번 전시는 작가의 첫 미술관 개인전이다. 그의 페르소나 '빅(Vick)' 캐릭터 조각과 팬데믹 시기에 만든 캐릭터 '비스티(Visty)'의 7m 규모 부조, 1백여 점의 크레용 드로잉, 네온 작품 등 총 2백50여 점과 더불어 도쿄 스튜디오를 재현한 공간도 선보이고 있다. 오는 7월 19일까지. 글 **고성연** 홈페이지 <https://www.lottemuseum.com>



롯데뮤지엄, (아이 빌리브 인 미) 전시 전경, 2026 이미지 제공_롯데뮤지엄 사진_필모스튜디오





허리 벨트 디테일로 구조적인 실루엣을 완성한 코튼 재킷 2백85만원 페라가모.



모노그램 패턴에 볼륨감 있는 매듭 디테일을 가미한 스크런치 49만원 루이 비통.

for her Selection

클래식한 무드와 실용적인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는 소프트 유틸리티 룩.

PHOTOGRAPHED BY YOON JIYOUNG, KIM YOUTAE

곡선 형태의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눈부신 광채를 선사하는 톨다의 보우 다이아몬드 이어링 4천7백6만원 그라프.



리본 디자인 모티브에 다이아몬드 세팅한 코튼 소재 쇼츠 1백60만원 로모베.



완전함과 행운을 상징하는 숫자 '8'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울루 이터너리 링을 가려 미정 카린.



매끈한 메탈 소재를 조형적으로 풀어낸 엘리스 헤어 클립 1백55만원 보테가 베네타.

발등을 부드럽게 감싸는 크로스 스트랩 디자인의 샌들 1백55만원 로렌 컬렉션.



다이아몬드와 그린 차보라이트, 사파이어 장식으로 화려한 컬러감을 더한 포제션 링 4천2백50만원 피아제.



부드러운 숨이치 가죽 소재로 제작한 크로스 보디 백 19.5×10×8.5cm, 1백66만원 리모와.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크로크라네 네크리스 가격 미정 샤넬 파인 주얼리.

곡선형 실루엣과 컬러 렌즈가 어우러진 오브 선글라스 81만원 미우미우 by 에실로룩스티카.



크로커다일 스트랩과 다이아몬드 세팅 다이얼이 어우러진 레인드 네이플 8938 8천7백60만원대 브레게.



승마 장비에서 영감을 받은 클래식 장식이 돋보이는 Della Cavalleria 미니 백 1천52만원 에르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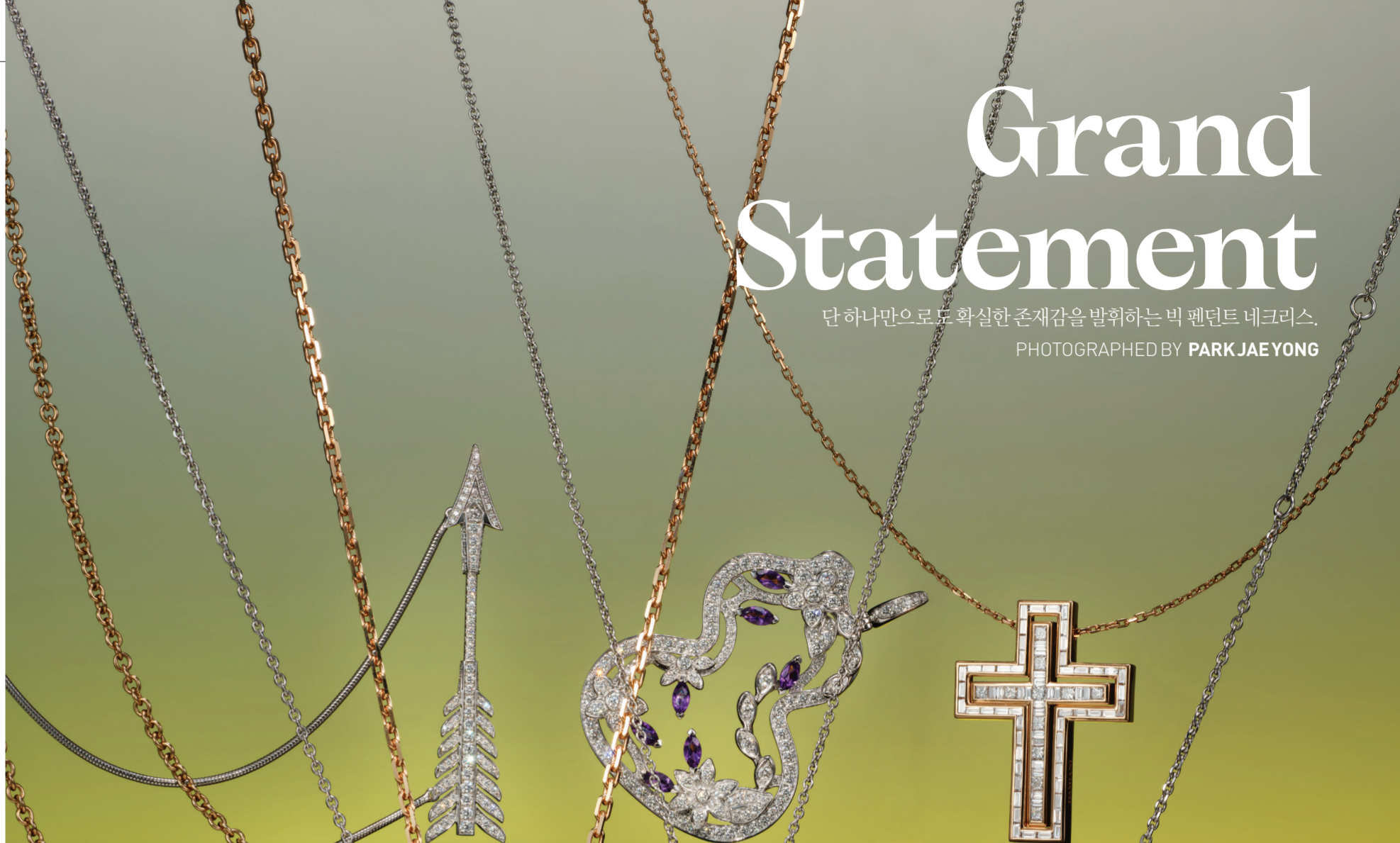
다음 오버리크 패턴을 담은 실드 트릴 소재를 다량한 스타일링에 활용하기 좋은 스카프 340~350천원대 디올.



그라프 02-2256-6810 디올 02-3480-0104 루이 비통 02-3432-1854 리모와 02-546-3920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샤넬 파인 주얼리 080-805-9628 브레게 02-6905-3571 키린 02-2118-6228 피아제 1688-1874 말프 로렌 컬렉션 02-3479-1465 에실로룩스티카 02-569-3914 에르메스 02-542-6622 페라가모 080-001-1927 로모베 02-3479-1785

Grand Statement

단 하나만으로도 확실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빅 펜던트 네크리스.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왼쪽부터 차례대로) 포멜라토 사비아 라리넷 네크리스 브랜드 고유 의 독창성을 잘 보여주는 디자인이다. 비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골드 플레이트 여러 개를 우아하게 늘어뜨려 풍성한 실루엣을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030-8321-0441 부세론 플래쉬 펜던트 메종의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으며, 확실속부터 깃털까지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화살 특유의 날렵한 대담함을 재현했다. 가격 미정. 문의 080-822-0250 반클리프 아펠 조디악 타우루스 룩 네크리스 신비로운 천체를 담은 별자리 컬렉션 중 하나. 로즈 골드와 그린 에벤추린 스톤으로 정교하게 양각해 황소자리를 표현했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키린 맥시 울루 가든 네크리스 행운과 풍요를 뜻하는 조롱박 모티브에 오픈워크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수정과 다이아몬드로 섬세하게 장식했다. 3천4백14만원. 문의 02-3110-5189 그라프 아이클 컬렉션 더블 옐로 다이아몬드 드롭 펜던트 총 1.98캐럿의 페어 컷 옐로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1.41캐럿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가격 미정. 문의 02-2150-2320 샤넬 파인 주얼리 드롭 이터널 N5 펜던트 네크리스 브랜드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세팅 숫자 5 모티브 아래로 수려하게 이어지는 드롭 디테일의 펜던트가 특징이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다이아니 벨 에코크 네크리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핑크 골드 실지가 펜던트가 화려하며 색다른 맛을 선사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에디터 김하얀



넉넉한 수납공간과 견고한 실루엣이 특징인 그리핀 플랩 백팩 1백35만원 투미.



베르디트 다이얼에 피아제 355P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한 스웽링 페달 스프드와 시계 가격 미정 피아제.



도트 패턴과 컬러 라인이 조화를 이루는 프린트 실크 트윙 스키프 44만원 미우미우.



오닉스 1.15캐럿을 세팅해 포인트 링으로 착용하기 좋은 세팅 보행 링 3백35만원 부쉐론.

수납 가능한 포켓이 달린 코트 소재 진 재킷 3백88만원 펜디.



함보르거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아이크닉한 아웃솔을 채택한 로퍼 1백8만원 토즈.

인트레이어 워밍 기법을 적용한 양털로 통창 기간 장 89만원 보타가 베네통.



발목까지 부드럽게 감싸는 유연한 착용감의 맨 화이트 삭스 31만원 디올.



18K 옐로 골드 소재의 빈티지 알함브라 브레이슬릿 1천1백50만원 반클리프 아펠.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리모디드 우사인 볼트 세라믹 카본 44mm 4천3백40만원 워블로.

강렬한 햇빛을 차단해줄 넓은 챙과 길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을 더한 피셔맨 햇 85만원대 로에베.



콤팩트한 사이즈로 가벼운 여행에 활용하기 좋은 크로스 보디 백. 21.5x13x7cm, 2백39만원 리모와.



하리 라인을 조절할 수 있는 벨트가 달린 모노그램 패턴의 린스톱 쇼츠 2백39만원 루이 비통.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디올 02-3480-0104 리모와 02-546-3920 미우미우 02-569-3914 보타가 베네통 02-3438-7682 부쉐론 02-3467-8334 워블로 02-540-1356 루미 02-539-8160 피아제 1688-1874 루이 비통 02-3432-1854 에실로룩스티카 02-569-3914 펜디 02-544-1925 로에베 02-3479-1785 토즈 02-3448-8233



볼드한 프레임과 메탈 포인트가 눈에 띄는 선글라스 63만2천원 프라다 by 에실로룩스티카.

에디터 신영희 스타일리스트 이승은

for him Selection

가벼운 아우터와 포켓 디테일이 돋보이는 백팩, 기능성을 갖춘 워치까지. 활용도 높은 아이템으로 완성한 맨즈 서머 룩. PHOTOGRAPHED BY YOON JIYOUNG, KIM YOUTAE



Dynamic Hue

블루와 그린 다이얼 위치는 동시대 워치메이킹의 미감을 반영하며, 청량한 컬러와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동시에 전한다.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메가 피게 로열 오크 셀프와인딩 그린 말라카이트의 자연스러운 결이 돋보이는 스톤 다이얼과 37mm 옐로 골드 케이스, 그리고 폴딩 클래스프를 갖춘 브레이슬릿이 조화를 이룬다. 기계식 무브먼트 칼리버 5909로 구동한다. 1억1천68만원. 문의 02-543-2999

까르띠에 산토스 드 까르띠에 라지 1904년에 탄생해 꾸준히 진화 중이다. 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컬러 레이어가 드러나는 그레데이션 그린 다이얼과 스틸 케이스, 그리고 로마숫자 인덱스를 조합해 균형 잡힌 디자인을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326

파네라이 루미노르 두에 PAM01124 선레이 브리드 블루 다이얼과 42mm 스틸 케이스가 어우러진 모델이다. 3시 방향 날짜창과 9시 방향 스물세컨즈를 갖춘, 오토매틱 P.900 칼리버를 탑재해 약 3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1천2백35만원. 문의 02-2118-6256

IWC 빅 피렐렛 퍼페추얼 캘린더 프로셋 42mm 옐로 골드 케이스와 선레이 옐로 그린 다이얼에 슈퍼루미노바를 채운 아라비아숫자 인덱스와 핸즈로 가독성을 확보했다. 다이얼에는 날짜, 요일, 월, 문페이즈를 표시하는 4개의 서브 다이얼을 정교하게 배치했으며, 단일 크라운을 통해 캘린더 기능을 포함한 각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315

에거 르콜트르 폴라리스 데이트 래커 처리한 블루 다이얼에 은은하게 빛이 퍼지는 오벌린, 미세한 입자 질감의 그레인데, 방사 형태의 선레이 브리딩 등 세 가지 파나시어로 풍성한 컬러와 질감을 자랑한다. 인하우스 칼리버 899를 장착해 약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449-5912

피아제 폴로 시그니처 데이트 지름 42mm 스틸 케이스에 입체적인 가로 패턴이 인상적인 블루 다이얼과 야광 아워 마커를 더했다. 시간과 날짜 기능을 갖춘, 인하우스 제작 1110p 기계식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적용했다. 2천3백만원대. 문의 1877-4275

오메가 씨마스터 브랜드가 자체 개발한 서머 블루 컬러의 유광 다이얼에 그레데이션 효과를 부여했다. 로듐 도금 핸즈, 오목한 아워 마커를 적용해 입체감을 주었으며, 자동 와인딩 무브먼트 8912를 장착해 약 6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높은 항자성 등을 제공한다. 1천만원대. 문의 02-3467-8632 에디터 김하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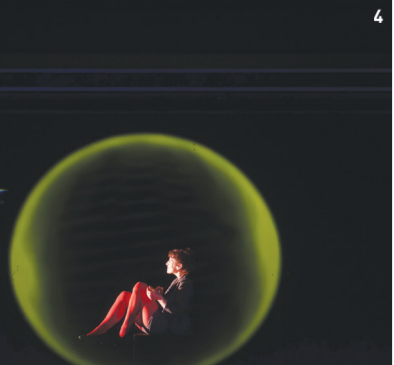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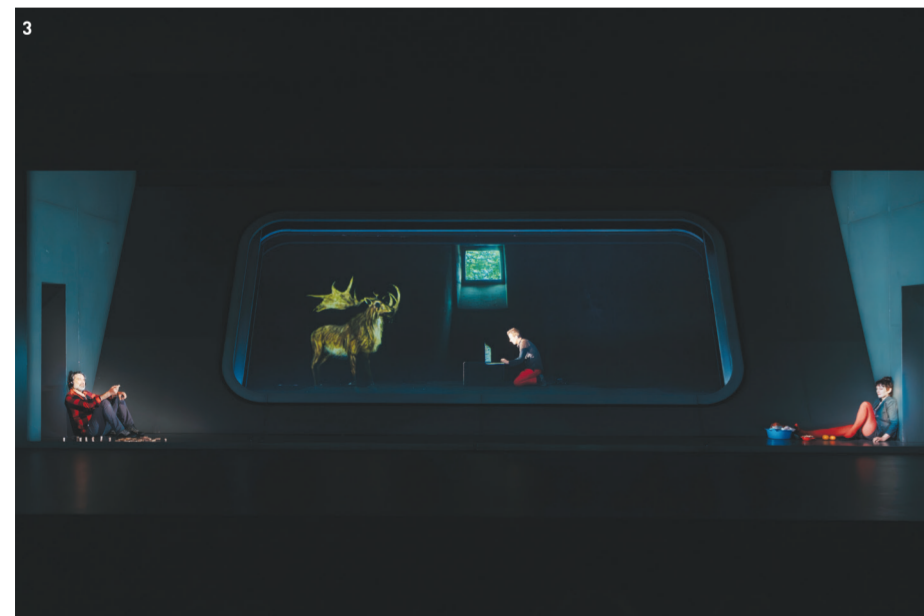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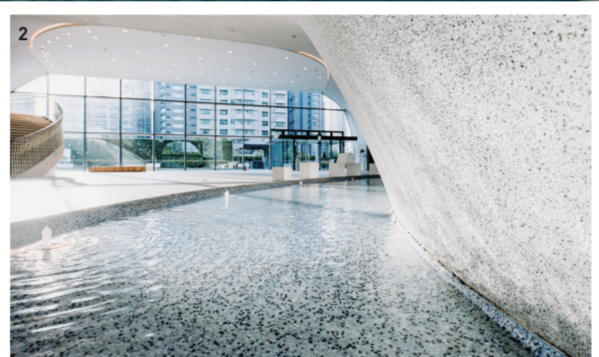
스타일리스트 김지현



타이중 국가극원(NTT) 2026 아트 노바(ARTS NOVA) 시리즈

예술과 기술을 포용하는 동시대 극장의 몸짓

대부분의 문화 예술 공간이 그렇듯 동시대 극장도 기술·사회·관객 경험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흐름을 품고자 창의적인 몸부림을 친다. 정해진 좌석과 시나리오 없이 '몰입형(이머시브) 시어터'라는 장르를 부각시킨 '슬립노모이' 같은 관객 이동형 공연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 에버(EveR)를 지휘자로 세운 관현악 공연 부재(不在)나 VR과 공연 예술의 접목을 시도한 '관현악의 기원' 같은 우리나라 국립극장의 시도 역시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는 일례다. '국립', '시립'처럼 공공 플랫폼일 경우에는 대중적인 오락성을 갖춘 작품을 무대에 올리면서도 묵직한 의제를 다루는 사회적 담론의 장, 그리고 혁신적인 실험극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토대로서의 역할도 해내야 한다. 대만 타이중에 자리한 국가극원(NTT)의 연간 프로그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체 몇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나, 싹을 정도로 다채롭고도 균형 잡힌 스펙트럼에 반하게 된다. 건축부터 전형적인 '상자형'에서 벗어난 NTT는 기술과 예술을 새로운 감각과 방식으로 버무리는 첨단화와 현장성과 육체성에 중점을 둔 극장의 오래된 본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듯하다. 두 방향성이 서로를 억누르거나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거나, 심지어 북돋기도 한다. 특히 2023년부터 해마다 봄을 수놓고 있는 '아트 노바(ARTS NOVA)' 시리즈는 이러한 면모를 잘 드러내는 시즌제 프로그램이다. 동시대 극장다운 모색 속 여정을 절로 응원하게 되는 NTT의 봄을 함께해봤다.



대만 중부를 떠받치는 '허리' 도시 타이중의 대표적인 신도심인 시둔구(西屯區, Xitun District)에 터를 잡고 공식 개관을 일린 지 10년이 된 국가극원(National Taichung Theater, 이하 NTT). 전통 경극(오페라)부터 민속음악, 뮤지컬, 클래식, 무용, 아트 & 테크 등 다양한 공연 스펙트럼을 지닌 시민의 전당이다. 일본 건축 거장 이토 토요(Toyo Ito)가 설계한 랜드마크인 만큼 자연스레 이끌렸는데 작년 늦가을, 처음 이 극장을 찾았을 때 마침 '건축 투어'부터 하게 됐다. 걸모습을 보면 우아한 외인잔 혹은 보트의 형상을 닮은 파사드가 눈길을 사로잡고, 내부는 마치 유기적인 동굴 형태처럼 곡선으로 느슨하게 이어져 있는데, 공간 경험 자체를 풍요롭게 해주는 몰입형 설계가 인상적이다. 그러다가 우연히 시기가 맞아 2천 석 규모의 대극장 객석을 거의 채울 만큼 화려한 스펙터클을 선사하는 경극 한 편을 봤고, 몇 주 만에 다시 방문했을 때는 겨울 시즌 국제 프로그램 하이라이트인 다큐멘터리 연극 'The Making of Berlin'을 중극장(플레이하우스)에서 관람했다. 영화와 연극의 크로스오버를 시도하는 벨기에 그룹 베를린(BERLIN)이 연출한 작품으로, 나치 시절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둘러싼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들며 갈수록 긴장감 있게 풀어내는 전개 방식과 구성이 조만간 한국에도 들여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참신한 수작이었다.

“우리는 매우 추상적인 방식으로 작업하지만, 결국에는 관객이 공연과 자기 자신을 연결 짓기를 원합니다”
-릭서리로지코

아트×테크, 새로운 공연 경험에 초점을 맞추다
그리고 올봄, 동시대 미술을 주로 다뤄온 직업 때문인지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가는 NTT의 봄 프로그램엔



자의 시점과 감정에 따라 얼마나 다른 현실을 분열될 수 있는지를 체험하게 만드는 데 더 가까이 보인다. 이 작품은 일본 사회의 '히키코모리' 현상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내부의 단절과 소통 실패를 다층적으로 변주하는 구조에 가깝다. 스스로 세상과 벽을 쌓는 소년 빌스를 중심으로 한 고립의 서사는 점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3개의 독립된 인식 체계로 확장된다. '3개의 고독(three solitudes)'이라는 조리스 마티외의 설명처럼, 이 작품은 고립을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로 제시한다. 하지만 서사 자체의 충격도, 문제의식도 아시아 관객의 관점에서는 다소 익숙한 지점에 머문다. 학교 폭력과 교육 경쟁, 사회적 은둔 같은 문제는 이미 여러 콘텐츠를 통해 반복적으로 소비되어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작품의 강점은 이야기기 아니라 형식에 있다. 관객이 같은 사건을 '각자 다르게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연 이후에야 깨닫는 구조는, 하나의 진실이 아닌 복수의 진실을 동시에 체험하게 만든다.

#'더 라스트 퀘스천', 극장을 살아 있는 감각 장치로 바꾸다

올해 아트 노바 프로그램의 전면목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 여겨지는 작업은 대만 아티스트 컬렉티브 리치로지코(LuxuryLogico)의 극장 데뷔작인 '더 라스트 퀘스천(The Last Question)'이다. 조명, 기계 설치, 공간, 사운드, 퍼포먼스를 넘나들며 기술과 감각의 접점을 탐구해온 이들은 지난해 타이베이 현대미술관(MOCA Taipei)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열기도 했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극장'이라는 공간 자체를 매체로 삼았다. 그리고 '무인 극장'을 택했다. 공연이 열린 대극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익숙하게 알고 있던 객석과 무대의 관계는 이미 뒤집혀 있다. 관객은 기존의 무대 자리에 놓인 의자에 앉는다. 극장과 관객의 위계가 흐려진달까. 그리고 그 빈대밭에서 배우 대신 빛과 구조물, 소리와 기계장치가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한다. 객석은 어느 순간 거대한 감각 실험실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극장은 더 이상 이야기를 전달하는 장소가 아니라, 관객의 감각과 기억을 작동시키는 유기적 시스템처럼 변모한다. 공연의 핵심 이미지이자 장치는 한 쌍의 커다란 손이다. 이 기계적 손은 공간 속에서 움직이며 사물과 빛을 조작하고, 마치 어떤 존재가 세계를 더듬거나 기억을 재조립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어 등장하는 반짝이는 '빛의 구'는 공중에 떠다니며 감정과 시간, 선택의 흐름을 연결하는 중심축 역할을 한다. 극의 흐름 자체는 단순하다. 거창한 서사를 직접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그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딸의 생일을 축하하는 아버지의 다정한 모습이 깃든 평범한 일상이

1 2016년 공식적으로 문을 연 대만 타이중의 국립극장 국가극원(NTT) 외관
2 일본 건축 거장 이토 토요가 설계를 이끈 NTT는 실의 환화를 떠올리게 하는 파사드도 그렇지만 곡면형 구조, 벽과 전시 무대를 넘나드는 여러 공간으로 유명하며, 그 자체로 설치 작품 같은 오라를 자른다.
3-5 프랑스 연출가 조리스 마티외(Joris Mathieu)와 오 에 쿠르(Haut et Court) 컬렉티브가 공동 창작한 '히키코모리: 더 셸터(Hikikomori: The Shelter)'. 관객이 세 가지 시점을 랜덤으로 제시하는 헤드폰을 쓰고 참여하는 몰입형 작업. 2016년 프랑스 리옹에서의 초연을 거쳐 해외 순회 공연을 가졌다. 극 내용은 지역별 버전이 있다면 더 매력적일 듯하다.
6 독특한 조명, 기계 설치, 공간, 사운드, 퍼포먼스를 넘나들며 기술과 감각의 접점을 탐구해온 대만 아티스트 컬렉티브 리치로지코(LuxuryLogico)의 극장 데뷔작인 '더 라스트 퀘스천(The Last Question)' 작업 과정. 7-9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기계장치와 사운드 위주의 무대를 꾸리지만 시적 미학이 빼어난 '더 라스트 퀘스천은 서로의 감정이 다른 4인조로 출발한 아티스트 컬렉티브로, 한 명이 작고해 현재는 3인조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아산에도 미술관에서 거대한 한 쌍의 기계 손을 활용한 작품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극장 버전은 비록 강력한 서사 중심은 아니지만, 부녀의 서사를 연상시키는 지점이 있는데, 대중 관객을 생각한 고인의 소신이라고. ※ 1~9 이미지 제공 NTT

자연과 우주의 이미지로 확장되고, 어느 순간 지구의 위기로 모든 것이 소멸해버린 절망적 상황을 연상시킨다. 빛의 구가 유려하게 춤을 추면, 관객은 개인적 기억과 우주적 사유 사이를 오가며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리고 결국 극은 '마지막 순간 다시 시작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수렴된다.

기술은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또 다른 언어

이 작품은 약 60분 동안 인터미션 없이 진행되는 극장형 '기계 시(機械詩)'에 가깝다. 기계적 구조와 추상적 이미지를 통해 관객 각자의 기억과 감정을 호출한다. 인간 배우의 부재는 오히려 감각의 밀도를 극대화한다. 움직이는 오브제와 기계장치는 이상하리만큼 감정적인 존재처럼 느껴진다. 기술은 전면에 드러나지만 결코 과시되지 않는다. 바로 기계 미학이 극장의 '본질'을 희석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는 경우다. "우리는 매우 추상적인 방식으로 작업하지만, 결국에는 관객이 공연과 자기 자신을 연결 짓기를 원합니다." 공동 창작자인 순회 공연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누군가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관객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관은 팀 이름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리치로지코(LuxuryLogico, 豪華邏輯工)는 얼핏 장난스러운 합성어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유쾌하지만 나름 치밀한 구조에서 탄생한 이름이다. 한자 표기인 '豪華邏輯工(호화합리공)'에서 '豪華(호화)'는 고인이 된 단장 장경화(張敬華)와 그의 형 장경호(張敬豪)의 이름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왔다. 여기에 동창생 2인 조 그룹인 '로지코(Logico)'의 멤버 린룬잉(林珮穎), 천즈젠(陳志建), 천이(陳義)가 합류하며 2010년 현재의 팀이 결성됐다. '邏輯工(합리공)'은 기존 팀명 'Logico'를 단순히 음역한 표현이 아니다. 사고방식 자체를 한자 구조 안에 재설계한 개념에 가깝다. '解'는 밝고 열린 사고를, '構'는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工'은 제작과 공학을 의미한다. 결국 'luxury'의 감각성과 'logico'의 시스템적 사고가 교차하는 이중구조인 셈이다. 하나의 의미로 한정 짓지 않고, 읽는 방식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층위를 활짝 열어내는 이들의 작업 세계와도 닮았다. 케네딕 아트와 사운드, 기계 구조물, 퍼포먼스를 넘나들며 구축하는 이들의 작업은 '시적인 기계 미학'이라는 점에서 한국 작가 권병준을 떠올리게 한다. 정교하게 설계된 조명 네트워크와 기계 시스템 아래에는 상식, 관계, 기억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정서가 흐른다는 공통분모도 있다. 최근 해외 무대에서도 점차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리치로지코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글 고성연(타이중 현지 취재)





©Cartier ©Valentin Abad

**컬렉터들을 위한 특별한 시계, 프리베
-크래쉬 스켈레톤, 탱크 노말,
톡튀 크로노그래프 모노푸셔**

까르띠에는 과거의 컬렉션인 프리베 까르띠에 파리(Collection Privée Cartier Paris, CPCP) 전통을 잇는 까르띠에 프리베 컬렉션을 통해 매년 까르띠에의 위치메이킹 유산을 대표하는 상징적이고 특별한 형태의 위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올해 열 번째 작품을 선보이는 까르띠에는 이전 에디션에 대표하는 상징적인 디자인의 크래쉬 스켈레톤(Crash Squelette), 탱크 노말(Tank Nomale), 톡튀 크로노그래프 모노푸셔(Tortue Chronographe Monopoussoir)를 기념한다. 이 특별한 3피스는 메종의 시그니처 소재인 플래티넘에 경의를 표한다. 여기에 버진디 컬러 포인트를 더해 세 가지 크리에이션을 하나로 연결했다. 먼저 까르띠에 크래쉬 스켈레톤은 차 사고로 케이스가 완전히 찌그러진 배누아 알롱제(Baignoire Allongée)의 수리를 의뢰한 고객의 사연에서 영감을 받아 1967년 세상에 등장한 크래쉬 위치를 재해석했다. 당시 영국에서 일어난 활기찬 문화 혁명 '스윙잉 런던(Swinging London)'의 중심이었기에 이토록 창의적인 형태의 위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비대칭 다이얼은 위치메이킹의 미학적 코드를 혁신적으로 뒤 흔들었으며, 이후 소수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만 제작해왔다. 까르띠에는 올해 이 위치를 스켈레톤 형태로 다시 선보인다. 더 놀라운 사실은 케이스 형태뿐 아니라 그 안에 장착한 무브먼트 역시 찌그러진 형태에 맞게 제작한 것. 매뉴얼 와인딩 방식의 까르띠에 매뉴팩처 1967 MC 무브먼트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독창적인 라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특별히 개발되었고, 1백42개 부품 모두 이 찌그러진 형태의 작은 공간에 담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러한 무브먼트 구조는 특허를 획득했으며, 번호를 부여한 1백5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더 놀라운 점은 크라운의 위치를 아래로 내려 마치 무브먼트를 끌어내린 듯 보이도록 함으로써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2
1



©Cartier ©Valentin Abad



©Cartier ©Valentin Abad

- 1 까르띠에 헤리티지 피스를 재해석해 스켈레톤 형태로 케이스의 셰이프뿐 아니라 무브먼트까지 재탄생시킨 크래쉬 스켈레톤.
- 2 1998년 컬렉션 프리베 까르띠에 파리에서 선보인 모델을 재해석한 톡튀 크로노그래프 모노푸셔.
- 3 케이스는 물론 브레이슬릿까지 플래티넘 소재로 선보이는 탱크 노말.
- 4 스틸에 화이트 다이얼을 매지한 로드스터.

다음으로 지난 2023년 까르띠에 프리베 컬렉션으로 부활했던 탱크 노말이다. 올해는 케이스는 물론 브레이슬릿까지 플래티넘 소재로 선보인다. 7개의 줄로 이뤄진 플래티넘 브레이슬릿과 매뉴얼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를 갖춘 이 위치는 브리싱 처리한 케이스, 폴리싱 처리한 샤프트의 가장자리, 케이스 테두리의 메탈이 대비를 이루며 빈티지한 매력을 선사한다. 인덱스와 다이얼에 버진디 디테일로 포인트를 부여하고, 아이코닉한 블루 컬러 핸들로 마무리했다. 가로세로 25.7×32.6mm, 두께 6.85mm 케이스에 두께가 단 2.15mm에 불과한 울트라-씬 사양의 매뉴팩처 수동 칼리버 070로 구동한다. 대미를 장식한 위치는 톡튀 크로노그래프 모노푸셔. 1998년 컬렉션 프리베 까르띠에 파리에서 선보인 모델을 재해석한 것으로 12시 방향, 즉 XII를 확대하는 동시에 다이얼 4개 모서리에 자리한 비즈 아워 마커, 레일 트랙, 삼각형 모터브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케이스 형태에 맞춰 디자인한 싱글 버튼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 까르띠에 매뉴팩처 1928 MC 무브먼트를 탑재했으며, 크라운에 통합된 푸시 버튼 하나로 스타트·스톱·리셋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4.3mm 두께의 정교한 무브먼트는 메종에서 가장 얇은 크로노그래프다. 탁월한 피니싱과 브리싱 형태를 강조하는 코트 드 주네브(Côte de Genève) 장식의 곡선미가 어우러지며 장인 정신과 디자인을 완벽하게 결합했다.

3

화려한 복귀, 로드스터

2002년 처음 출시된 로드스터는 '경량 컨버터블'을 뜻하는 이름의 자동차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위치 컬렉션이다. 까르띠에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럭셔리 스포츠 위치로 스피도미터(speedometer, 속도계)에서 영감을 받은 다이얼, 원뿔형 크라운, 헤드라이트 형태의 날짜 확대경, 리벳과 스크루 등 기계의 보드워크에서 모티브를 얻은 대담한 코드를 차용하면서 많은 위치 애호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까르띠에는 이 로드스터를 부활시키면서 비율을 재정의하고 라인을 더욱 날렵하게 다듬으며 인체공학적 자동차 설계를 재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정제된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기계적 동체의 디자인 세계에서 대담한 코드를 차용한 것. 우선 크라운을 완벽하게 통합해 베젤과 케이스 간의 조화로움 균형을 만들어냈다. 소재 면에서는 크리스털과 메탈의 상호작용을 더 깊게 탐구하며, 캐주얼한 디자인을 더

욱 부각시킨다. 다이얼 안은 원형 스트라이프 패턴, 레일 트랙, 로마숫자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스텝형 도구로 구현한 아플리케 효과로 입체감을 주었으며, 인덱스와 전사 처리한 레일 트랙을 바니시 처리로 완성해 디자인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스틸 버전의 다이얼은 실제 대시보드처럼 슈퍼루미노바® 코팅을 더한 블루 혹은 엔트리아이트 검 모양 핸즈를 매지했다. 두 가지 시그니처 셀프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로 구동하며 라지 모델에는 1847 MC, 미디엄 모델에는 1899 MC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메탈 브레이슬릿의 경우 더 짧고 인체공학적 링크부터 폴리싱과 브리싱 처리한 표면, 교체 가능한 특허 받은 퀵스위치(QuickSwitch™) 시스템을 적용해 한층 더 편리한 착용을 돕는다. 로드스터 위치는 라지와 미디엄 모델도 출시되며, 라지 모델에는 스틸에 화이트 다이얼을 매지한 버전, 옐로 골드, 옐로 골드와 스틸 콤비, 스틸에 블루 다이얼을 매지한 버전으로 출시한다. 미디엄 사이즈의 경우 옐로 골드, 옐로 골드와 스틸 콤비, 스틸에 화이트 다이얼을 매지한 버전으로 출시한다.



©Cartier ©Laure Sée

4

Architectures of Time

'형태의 위치메이커(Watchmaker of Shapes)'이자 '공예의 대가(Master of Crafts)' 까르띠에. 스퀘어부터 커브, 직사각형, 오벌 형태 등 가장 본질적인 형태부터 표현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까르띠에 위치의 모든 셰이프는 각자의 고유한 디자인에 맞는 맞춤형 장인 정신을 요구한다. 올해 역시 다양한 위치 컬렉션을 재탄생시키고 새롭게 해석해 선보이며, 마법 같은 위치메이킹 기술을 드러낸다.

“2002년 처음 출시된 로드스터는 '경량 컨버터블'을 뜻하는 이름의 자동차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위치 컬렉션이다. 까르띠에는 이 로드스터를 부활시키면서 비율을 재정의하고 라인을 더욱 날렵하게 다듬으며 인체공학적 자동차 설계를 재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Cartier ©Annick Lejart

베누아 워치, 끌루 드 파리와 만나다

까르띠에 워치메이커들은 주얼리의 시선으로 1920년대 초부터 까르띠에 디자인 어휘의 한 부분을 차지한 끌루 드 파리(Clou de Paris) 모티브를 베누아 워치에 적용해 또 하나의 미학을 완성했다. 1958년 처음 등장해 1973년 공식적인 이름을 얻게 된 베누아 워치는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며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2023년에는 뱅글 브레이슬릿 형태의 새로운 에디션으로 출시해 혁신을 이루고, 주얼리 워치의 상징성을 더욱 견고히 하기도 했다.

올해 까르띠에 메종은 이 베누아 뱅글 전체를 끌루 드 파리 모티브로 장식해 새로운 해석을 더했다. 이 모티브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형태와 볼륨감을 균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원하는 형태로 성형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비율과 장인의 손길이 필요하다. 메종은 끌루 드 파리 모티

1 끌루 드 파리 모티브를 적용한 베누아 뱅글 워치. 왼쪽은 다이얼과 뱅글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 오른쪽은 옐로 골드로만 완성한 버전이다.
2 끌루 드 파리 베누아 뱅글 워치. 옐로 골드 버전이며 블루 사파이어로 장식한 크라운이 특징.

브로 베누아 뱅글 전체를 장식하기 위해 특별 형태와 비율을 조정하고 재구성했으며, 브레이슬릿과 다이얼 사이의 완전한 연속성을 구현하기 위해 골드 톤으로 제작했다. 클래식 위 옐로 골드 푸시 버튼처럼 브레이슬릿과 곡선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정교한 요소에서 세심한 디테일을 엿볼 수 있다. 까르띠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도 추가했다. 이 특별한 타임피스는 메종의 진정한 쥘세팅 기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다이얼에는 1백 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스노 세팅했으며, 케이스는 끝이 덜 뾰족한 형태의 다이아몬드를 위한 인버티드 세팅을 채택해 피스 전반에 걸쳐 끌루 드 파리 모티브의 입체적인 볼륨과 다이아몬드가 조화를 이루게끔 했다. 두 피스 모두 24.6×19.3×7.5mm 사이즈로 완성했으며 퀴즈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Cartier ©Annick Lejart



©Cartier ©Mehmet Abad

3 화이트 골드에 화이트 다이아몬드로만 완성한 미스트 드 까르띠에 워치.
4 미스트 드 까르띠에 스케치와 워치.
5 유연한 엘라스틱 브레이슬릿을 제작하는 모습.
6 미스트 드 까르띠에 워치 제작을 위해 프로토타입을 디자인하는 모습.
7 브레이슬릿 마디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는 장면.
8 조각 작품 같은 형태는 물론, 다이아몬드 세팅과 레커 칠 등 아트 피스를 보는 듯한 미스트 드 까르띠에 워치.



©Cartier ©Julien T. Hamon



©Cartier ©Julien T. Hamon



©Cartier ©Julien T. Hamon



©Cartier ©Julien T. Hamon

워치메이킹과 예술의 경계, 미스트 드 까르띠에

주얼리와 워치메이킹 메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까르띠에에는 조각 작품 같은 워치인 미스트 드 까르띠에(Myst de Cartier)로 주얼리와 워치메이킹을 잇는 근본적인 연결 고리를 완벽히 구현했다. 주얼리의 시선과 워치메이커의 숙련된 손길이 조화를 이루며 라인의 상호작용, 패턴 작업, 소재의 아름다움, 그리고 다양한 기법이 어우러져 한층 완성도 높은 형태를 드러낸다. 까르띠에는 초기부터 대담한 창의성으로 워치메이킹에 접근하며 기존의 코드에 질문을 던지고 경계를 넓혀왔다. 올해 역시 새로운 미스트 드 까르띠에로 이 계보를 탄탄히 이어간다.

이번 미스트 드 까르띠에 워치는 여단은 클래식 없이 트롬프뢰유(trompe-l'oeil), 즉 유연하게 늘어나는 엘라스틱 브레이슬릿으로 워치를 찰 때 번거로움 없이 손을 통해 손목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이러한 마디 구조와 탄성을 구현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에 걸친 연구와 개발이 필요했다. 또 이를 위해 메종은 다이아몬드를 총 30시간 비즈 세팅했다. 다이아몬드는 다양한 크기로 하나하나 선별하고, 브레이슬릿의 마디마다 촘촘히 세팅해 원근감과 볼륨감을 구현했으며, 블랙 레커 라인은 까르띠에 장인이 손으로 직접 그려 완성했다. 19.7×15.4×9.9mm 사이즈의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며, 퀴즈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문의 1877-4326 에디터 성정민

©Cartier ©Julien T. Hamon



8

Big & Bold

스타일리시함을 완성하는 마지막 터치.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위부터 차례대로) 블랙 아세테이트 소재에 사이드 템플 골드 메탈 FF 인레이 장식이 포인트인 스퀘어 포에버 렌즈 선글라스 60만원대 렌즈. 문의 02-544-1925. 독특한 세이프와 살짝 비치는 브라운 렌즈가 개성 있는 록을 연출할 트라이엠프 미니 01 선글라스 68만원 셀린느. 문의 1577-8841. 오버사이즈 프레임과 모던한 디자인, 우아한 미감이 돋보이는 이탈리아 스타일 선글라스 59만5천원 페라카모 아이웨이 by 록웍스. 문의 1599-3016. 2026 S/S 컬렉션 쇼에 등장한 선글라스로, 2005년의 아이코닉한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의 웨어러블 레드 프레임이 클래식한 감각을 부여한다. 가격 미정 미우미우. 문의 02-541-7443. 와이드하고 볼드한 프레임에 사이드 로고 포인트로 어떤 룩에 매치하든 조화를 이룬다. 하우스의 헤리티지를 담은 S락 스퀘어 선글라스 84만원대 루아 비통. 문의 02-3432-1854. 다채로운 매력의 라운드 형태와 스포티함이 묻어나는 우아한 프레임 디자인이 매력적인 루네드 컬렉션 엘레베인 51만원 롱클레르. 문의 0030-8321-0794. 2026 S/S 시즌에 선보인 선글라스로, 각진 형태에 살짝 올라간 프레임 디자인이 세련된 느낌을 자아내며, 사이드 로고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에디터 선정

아이스톤 캠프



레콜 주얼리 스쿨(L'ÉCOLE, School of Jewelry Arts) in 서울

보석은 어떻게 '발견'하는가?

19세기 말~20세기 초반 문화 예술의 황금기로 불린 '아름다운 시절(벨 에포크)' 시대의 파리에서, 세계 최고의 주얼리 메종들은 방동 광장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들었다. 빛과 장인 정신, 권력과 미학이 교차하며 '하이 주얼리'라는 언어가 형성된 상징적 장소로 지금도 그 위상을 지키고 있다. 이 살아 있는 유산에서 출발한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의 지식 플랫폼, 레콜 주얼리 스쿨(L'ÉCOLE, School of Jewelry Arts)이 드디어 서울에서 첫 정규 과정을 선보인다. 보석에 다층적인 관심을 지닌 이들 사이에서 열렬한 호응을 받아온 이 '노마딕 스쿨'은 단기 워크숍을 넘어 깊이 있는 학습 구조로 한국을 찾아온다. 보석을 단순히 소유하거나 감상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식 체계로 '발견'하는 경험이 서울에서 새롭게 펼쳐진다.

보석은 단순히 아름답고 희귀한 장식이 아니라, 지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해온 물리적 기록이자 감각적 언어다. 보석학에서 정의하는 천연 보석의 범주는 광물에서 유기 기원의 진주와 호박, 그리고 극단적인 지질 조건에서 생성된 결정체까지 포함한다. 마치 화가의 팔레트처럼 모든 색조를 품고 있으며, 빛의 입사각과 파장의 흡수에 따라 끊임없이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이처럼 보석을 역사와 감각, 과학의 교차점에서 해석하는 시선은 6월 말 서울에서 전개되는 레콜 주얼리 스쿨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 하이 주얼리 브랜드 반클리프 아펠이 전적으로 후원하는 레콜 주얼리 스쿨은 교육과 전시, 출판, 연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플랫폼으로, 주얼리를 단순한 공예나 장식이 아닌 문화적 지식의 영역으로 다뤘다. 2012년 파리에서 설립된 이래 홍콩, 상하이, 두바이에도 캠퍼스를 두면서 유기적으로 확장해온 글로벌 프로젝트. 서울 북촌의 문화 예술 명소인 푸투라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3주(6월 25일~7월 15일)에 걸쳐 총 1백5개의 강좌를 진행한다. 교육은 주얼리의 역사, 젤스톤의 세계, 그리고 세공 기술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강의와 실습이 긴밀하게 교차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장인, 보석학자, 미술평론자가 참여하는 수업은 소규모로 운영되어 보다 밀도 높은 관찰과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에서는 실험 고고학 기반의 연구 프로젝트인 '켈트 토르크(Celtic Torque)' 복제 연구라든지 신라 유물과의 비교 같은 이슈도 다룬다. 이번 프로그램과 함께 공개되는 전시 <에메랄드 정원 - 원석의 발견>은 보석을 둘러싼 지식과 감각, 역사적 맥락을 동시에 탐구할 수 있는 기회다. 보석을 '보는 것'을 넘어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해석되며, 문화적 상징으로 축적되어온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경험의 장이다. 글 인터뷰 고성연



1 반클리프 아펠 컬렉션 목걸이(1971).
2 엔티크 에메랄드·다이아몬드 스페이크 밴글, 1850년경 제작. 페르클레션. © K. Faerber
3 프랑스 몽팡 지역에서 출토된 켈트족 몽팡 토르크의 복제품.
4 레콜 주얼리 스쿨 수업 현장.
5 레콜 주얼리 스쿨 서울 포스터.
* 1-5 이미지 제공, 반클리프 아펠



interview
올리비에 세구라
(Olivier Segura) 레콜 주얼리 스쿨 아시아 퍼시픽 지사장

보석학자 출신인 올리비에 세구라는 2018년 레콜 주얼리 스쿨에 사이언티픽 디렉터로 합류해 보석학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프랑수아 파르주와 함께 <보석의 발견>을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2023년 서울 디뮤지엄에서 열린 <반클리프 아펠: 시간, 자연, 사랑(Van Cleef & Arpels: Time, Nature, Love)> 전시 당시에 서울을 찾았고, 이번에도 북촌 한옥마을에 머물면서 푸투라서울에서 열리는 레콜 주얼리 스쿨에서 강의를 맡는다. 다음은 올리비에 세구라 지사장과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SC(Style Chosun, 이하 SC) 주얼리 문화의 정수를 소개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파리에서 시작했지만, 여러 도시를 순회하는 '노마딕 스쿨' 형태의 글로벌 프로젝트로 발전하게 될 줄 예상하셨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당시엔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주얼리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교는 있었지만, 누군가와 대화하고 전시를 보며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장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콜이 탄생했죠. 매달 1~2주 정도 정기적으로 코스를 운영했고, 당과 수업은 듣거나 여러 강좌를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명확한 향후 계획은 없었습니다. 저희 모델은 굉장히 독특하고 비교할 대상도 없던 터라, 오히려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죠.

SC 호응에 힘입어 점차 진화했는데, 지금처럼 전시와 연구까지 확장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초기에는 강의와 전문가와의 대화 프로그램만 존재했습니다. 당시엔 이렇게 확장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사람마다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강의실 수업, 전시, 팟캐스트, 전문 프로그램 등 저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이를 '지식으로 향하는 다양한 경로'라고 표현합니다. 레콜을 시작한 지 5~6년쯤 지나 파리에서 작은 전시를 열었는데,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좋았고, 그때 사람들이 주얼리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시 프로젝트를 키워나갔고, 오늘날에는 박물관과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대규모 전시·연구 프로젝트로 확장됐죠.

SC 실습을 하는 참여형 수업 방식은 설립 초기부터 고수해온 레콜만의 원칙인가요? 기존의 이념 중심 수업과는 사뭇 다른 경험일 것 같네요. '네, 저희는 설립 초기부터 레콜의 교육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학생들이 기뻐하진 않아 있는 게 아니라 보석 주위를 직접 돌아다니고, 서로 토론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죠. 사람은 한 주에 20분에서 30분 이상 집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습 후 이론으로 돌아오고, 다시 실습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흐름에 변화를 줍니다. 굉장히 이론적인 주얼리 역사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실제 보고 만지고, 주얼리를 가지고 서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도록 구성합니다.'

SC 보석학자 출신으로 레콜에서는 사이언티픽 디렉터로 시작하셨습니까.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서 얻은 경험도 수업에 반영되었죠? "그럼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루비 코스를 준비할 때는 직접 미얀마의 광산에 가서 현장을 기록하고, 기열 처리 과정을 수행하며, 광부와 현지 전문가를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집한 다양한 스토리를 실제 수업에 가져와 학생들이 직접 만지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가 현장에서 느낀 감정과 경험을 강의에서도 그대로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SC 누구에게나 열린 수업을 추구하는 과정답게 어린이, 장애인 등 여러 대상을 배려한 세심한 면모도 눈에 띕니다. '레콜'에서는 어린이 워크숍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를 위한 주얼리 전문 서적도 출판할 예정입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컬러, 브릴리언트 컷, 광채처럼 본질적인 시각적 요소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고민해왔죠. 이를 위해 '터치 & 필' 촉각 자료를 개발해 손끝으로 보석의 색과 컷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3D 기술과의 협업도 활용합니다. 홍콩에서 열린 산호 전시의 경우 실제 유물을 사용할 수 없어 3D 프린팅과 레진으로 정교하게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오브제도 경험 가능한 지식으로 전환하는 것이지요.

SC 전 세계로 레콜을 확장하며 현재 네 곳에 상설 캠퍼스(파리, 홍콩, 상하이, 두바이)를 두고 있는데, 도시를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일종의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확장하는 느낌도 듭니다. "명확한 비즈니스 논리가 존재한다기보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유기적인 발전 과정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서울 행사처럼, 홍콩과 두바이에서도 처음에는 단기 '노마딕 스쿨' 형태로 시작할 기회를 얻었고, 매년 '다시 돌아와달라', '정식 학교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니다. 2012년 파리에서 첫걸음을 뒀으니 올해로 14년째인데, 길다란 긴 여정이지만, 1백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메종과 비교하면 저희는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캠퍼스가 생겨날 것입니다."

SC 이번 레콜 주얼리 스쿨 서울은 3주 동안만 진행되기 때문에 인한 자체적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수업이 있다면요? "늘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보석학(gemology) 코스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팀을 나눠 스톤의 물리적, 화학적 차이를 분석하고, 어떤 것이 진짜 사파이어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동료와 협업하고 다른 팀과 경쟁하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강의 실 분위기도 매우 활기칩니다. 3년 전 서울의 단기 코스에서 '장인 정신'이라는 주제만으로도 즉시 집중하고, '주얼리 세공에 어떤 기술이 숨어 있는지 더 알고 싶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 기억납니다.'

SC 이번엔 함께 꾸릴 <에메랄드 정원 - 원석의 발견> 전시도 궁금합니다. 에메랄드가 오랫동안 특별한 상징으로 여겨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괄적인 구성을 지닌 이번 전시는 세 챕터로 나뉩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에메랄드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에메랄드는 보석학적으로 '베릴(Beryl)'이라는 광물 패밀리의 일원인데, 사실상 존재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돌입니다. 극적이고 예외적인 지각변동으로 전혀 다른 두 지층이 만나야 탄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산출됩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인간이 에메랄드를 어떻게 세공했는지 다룹니다. 흔히 모서리가 사선으로 깎인 직사각형 모양의 커팅 방식을 '에메랄드 컷'이라고 부르죠. 모서리가 충격에 약한 에메랄드의 파손을 줄이려고 이런 커팅 방식이 발전했고, 이것이 독창적인 미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세 번째 챕터는 에메랄드가 역사적으로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온 과정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하이 주얼리 작품을 통해 보여줍니다."



베자르 발레 로잔(Béjart Ballet Lausanne) with 김기민

신화에서 감각적 잔향으로 -BBL의 시간

우리가 흔히 '안무'라고 번역하는 'choreography'라는 단어를 놓고, 동시대의 무용 철학에 대한 책을 집필한 윤우인 저자는 춤을 계획하고 만드는 행위로 국한하기에 그냥 '코레오그래피'로 쓰기를 권유한다. 고대 그리스어로 '코레아(춤, choreia)+그래피(쓰기, graphy)'가 결합된 이 단어는 애초부터 '춤 쓴다'는 사유를 지녀서다. 움직임의 하나의 언어 구조, 감각적 배열, 혹은 인식의 기술로 간주하는 태도에서 출발하는, 고정된 개념의 '명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을 반복하는 유동적인 개념의 '동사'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지난 4월 말 내한한 베자르 발레 로잔의 공연은 이 개념이 지닌 사유의 깊이와 동시대적 확장성을 곱씹게 한다.

몸을 사유하는 동시에 몸을 넘어서며, 움직임을 구성하고 번역하는 모든 과정. 그것이 오늘날 다시 코레오그래피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다. 윤우인

동시대 발레를 대표하는 댄스 컴퍼니 중 하나인 베자르 발레 로잔(Béjart Ballet Lausanne, 이하 BBL)이 2001년 이후 25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 무대. 지난 4월 말 GS아트센터에서 나흘간 열린 이 공연은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 최초의 동양인 수석 무용수이자 한국이 낳은 발레계 슈퍼스타 김기민과의 협연으로 단연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보면 1987년 BBL을 창단한 모리스 베자르(Maurice Béjart, 1927-2007) 역시 20세기 중-후반 무용계에서 '슈퍼스타급' 존재였다. 그는 단순히 유명한 수준이 아니라, 뒤이어 각광받은 파나 바우슈처럼 현대무용의 판 자체를 바꿔놓은 인물이다. 전쟁 이후 유럽 문화가 재편되면서 발레가 더 이상 '궁정 예술'이 아니라 공연 예술 시장 속 경쟁 장르가 되어 고전 중심의 질서가 해체되는 전환기를 맞이한다. 현대무용과 안무가 중심 시스템이 자리 잡은 전환기에 베자르는 전통 발레의 문법에서 벗어나 음악·철학·종교적 상징·집단 에너지를 결합한 대규모 무대를 연출해낸 혁신자였고, 자신의 코레오그래피 스타일을 대중적으로도 크게 각인시켰다. 특히 라벨의 단순하지만 강렬한 선율을 몸짓으로 극대화한 '볼레로(Boléro)'는 베자르의 상징 같은 작품으로, 그의 뮤즈이자 삶의 동반자이기도 했던 호르헤 돈(Jorge Donn, 1947-1992)이 주역으로 원형 테이블 위에서 춤 남성 솔로 버전은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전설적인 자취를 남겼다.

모리스 베자르는 2007년 작고했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 그의 제자 줄리앙 파브르가 예술감독으로 BBL을 이끌면서 베자르 레퍼토리와 동시대 창작 사이의 균형을 새롭게 조율해나가고 있다. 지난 서울 공연은 "볼레로는 제 꿈"이었다 말하는 김기민을 비롯해 많은 무용수들이 담내웠던 작품 '볼레로'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가나친 창조적 여정을 이어온 BBL의 여러 시도를 반영한 스펙트럼을 접할 수 있는 계기였다. 스트라빈스키의 강렬한 음악을 바탕으로 한 '불새(The Firebird)', '라 루나(La Luna)', 세익스피어의 비극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햄릿', 그리고 조니 캐시의 음악을 통해 존재의 여운을 시적으로 담아낸 아시아 초연작 '바이 바이 베이비 블랙버드(Bye Bye Baby Blackbird)'가 무대에 올랐다. 각 작품은 베자르 안무 세계의 서로 다른 시기와 감각을 대표하는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BBL이라는 단체의 폭넓은 미학적 스펙트럼을 드러냈다. 필자는 국·내외 출장의 틈바구니 속에서 김기민의 '볼레로' 리허설과 프로그램 B 공연을 관람했다. 모든 공연을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무대는 BBL의 예술 세계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다른 몸과 사유의 감각으로 분화되어왔는지 하나의 작은 스펙트럼으로 다기했다.

'움직임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베자르와 BBL의 작업은 이 질문이 시대별로 다른 밀도로 나타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초기 작품에서 그의 작품은 집단적 이상과 상징을 향해 상승하는 힘이 압도적이다. 예컨대 '불새'(1970)에서 드러나는 군무의 구조는 신화적 에너지의 매개로 작동하며, 무대 전체가 하나의 의식과도 같다. 그러나 이 거대한 상승의 서사는 화려하지만 어쩐지 '20세기의 것'이라는 역사가 묻어났다. 이

1 음악·철학·집단지 에너지 결합 독창적인 무용 세계를 구축한 모리스 베자르 (1927-2007). 1955년 파리에서 자신의 첫 무용단 레 발레 드 레두앙을, 1960년 브뤼셀에서 20세기 발레단을 창단했고, 1987년에는 20세기 발레단의 이름을 베자르 발레 로잔(BBL)으로 재편해 스위스 로잔에 정착했다. 현재는 BBL의 대표적인 수석 무용수였던 줄리앙 파브르가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 Jean-Guy Python 2 지난 4월 말 서울을 25년 만에 다시 찾은 BBL의 '베자르 발레 로잔 with 김기민' 공연에서 무대에 올린 '불새'. 3 김기민과 BBL의 협업으로 화제를 모았던 베자르의 대표작 '볼레로' 공연 장면.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최초의 동양인 수석 무용수이자 무용계의 오스카상인 브누아 드 라 당스 '최고 남성 무용수상'을 받은 그는 이번에 단 두 차례 '볼레로' 무대에 올랐다. 4 고풍과 내면의 시학을 담아내는 여성 솔리스트의 정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라 루나' 공연 장면. Photo by Hidemi Seto 5 네덜란드 안무가 요스트 브라우엔라에초와 베자르 발레 로잔이 함께한 작품으로 아시아 초연작인 '바이 바이 베이비 블랙버드'. © BBL. Photo by Gregory Batardon * 1-5 이미지 제공 (주)인아트프로덕션

에 비해 베자르의 '볼레로'(1961)는 여전히 에너지의 흐름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핵심을 드러낸다. 상징이나 서사가 아니라 반복과 축적이 키워드다. 중심이 되는 신체를 향한 군무가 점차 밀도를 높여가면서, 무대는 이야기보다 물리적 긴장과 리듬의 구조로 달아오른다. 특히 '인물'이라기보다 '중력'에 가까운 '솔리스트'의 존재 방식에 따라 전체 작품의 에너지 방향이 달라진다. 유니섹스 작품으로 구성된 만큼 남녀 솔리스트와 군무를 추는 남성 무용수들이 주고받는 에너지의 느낌도 사뭇 다르다. 정지 동작에서도 존재감이 남다른 김기민의 절도 있고도 폭발적인 춤과 큰 키에서 나오는 동작의 우아한 예술성이 돋보이는 카타리나 체비키나의 중성적 매력을 보면 다른 무용수들의 버전이 절로 궁금해진다. '불새'보다 더 오래된 작품인데도, 동시대성이 느껴지고 '역시 베자르인가' 심을 정도로 구조적 매력과 몰입감이 대단하다.

같은 베자르의 작품이지만 여성 솔로 레퍼토리인 '라 루나'(1976)에서는 결이 다르게 펼쳐진다. 바흐의 바이올린 선율이 애잔하게 깔리는 이 작품은 군무의 움직임보다 '달'을 중심으로 한 장면 사이의 감각적 흐름이 신비롭고 몽환적으로 펼쳐진다. 베자르 특유의 강한 에너지는 있지만, 몸이 더 이상 중심으로 수렴하지 않고, 부유하는 감각의 매개로 존재하는 듯하다. 그리고 신체의 리듬과 구성의 밀도는 여전히 충충하지만,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후기 베자르의 기조를 잘 드러내는 작품이 아시아 초연작인 '바이 바이 베이비 블랙버드'다. 별다른 중심 서사 없이, 매일 아침 찾아오던 작은 새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미지에서 출발했다는 이 작품은 네덜란드 출신인 요스트 브라우엔라에초가 코레오그래피를 맡았다. 구조적 긴장감이 세련되게 배어 있는 이 작품은 사라져가는 것들과 존재의 나약함을 일깨운다. 조니 캐시의 처연한 미를 품은 음악은 감각의 잔향을 짙게 남긴다. 출거리 대신 이미지를 남긴다는 맥락에서 살짝 서늘한 추상표현주의 회화를 연상케도 한다. 개인적으로 가장 여운이 남고, 동시대적으로 읽히는 작품이다. 글 고성연



Citrus Harmony

산뜻한 그린 & 옐로 컬러 팔레트로 공간에 경쾌한 리듬을 불어넣는 리빙 오브제.

1 겹겹이 레이어드한 세이드 사이로 은은하게 퍼지는 빛이 조화를 이루는 PH아티초크 펜던트 1천9백42만원대 루이스폴센. 문의 031-5174-7829 2 유려한 곡선 실루엣이 돋보이는 비비드한 그린 컬러의 무라노 유리 와인 피쳐 가격 미정 돌체앤가바나 카사. 문의 www.dolcegabbana.com 3 부드러운 카프 스킨으로 제작했으며, 작은 액세서리를 보관할 수 있는 포켓 트레이 1백14만원대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4 각도에 따라 반짝이는 정교한 크리스탈 커팅의 토미 사르트로프스 그린 각테일잔 가격 미정 생 루이. 문의 070-8866-7770 5 부채머리산적책상을 모티브로 탄생한 ldyllia 로열 플라야케처 75만원대 스와로브스키. 문의 02-1522-9065 6 세이지 그린 구치 허베리움 패턴을 담은 머그컵 39만원대 구찌. 문의 02-3452-1921 7 옐로 마블 상판과 구조적인 메탈 프레임이 조화를 이루는 리브라 커피 테이블 2천만원대 미노띠. 문의 02-3446-1999 8 선명한 옐로 컬러와 유연한 구조의 아를레토 미니 불투명 옐로 29만9천원대 라몬. 문의 1600-1547 9 은은한 피스타치오 컬러와 볼륨감 있는 형태가 돋보이는 뉴 클래식 찬기 4만7천원 르크루제. 문의 1877-4281 10 실용적인 포켓 사이즈의 패트 와인오프너 프루스트 15만3천원 알레시. 문의 02-6299-5684 11 식물 심학가 그려진 도자기 소재의 티팟 가격 미정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12 옐로 시트와 화이트 가죽 셸이 어우러져 공간에 포인트를 주는 돌스 바이 로우 에이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13 아이코닉한 인트레치아토 워팅 스트랩이 달린 슈폰 가격 미정 보테가 벤테나. 문의 02-3438-7694 14 레진과 스파이스, 아로마틱 노트가 어우러진 깊고 관능적인 향의 오 드 퍼프 르 디와 블루 30ml 28만원대 아스티에 드 빌라트. 문의 0507-1328-7098 에디터 신정임



MYSTERY AT THE GROOMS'

사라진 말들을 찾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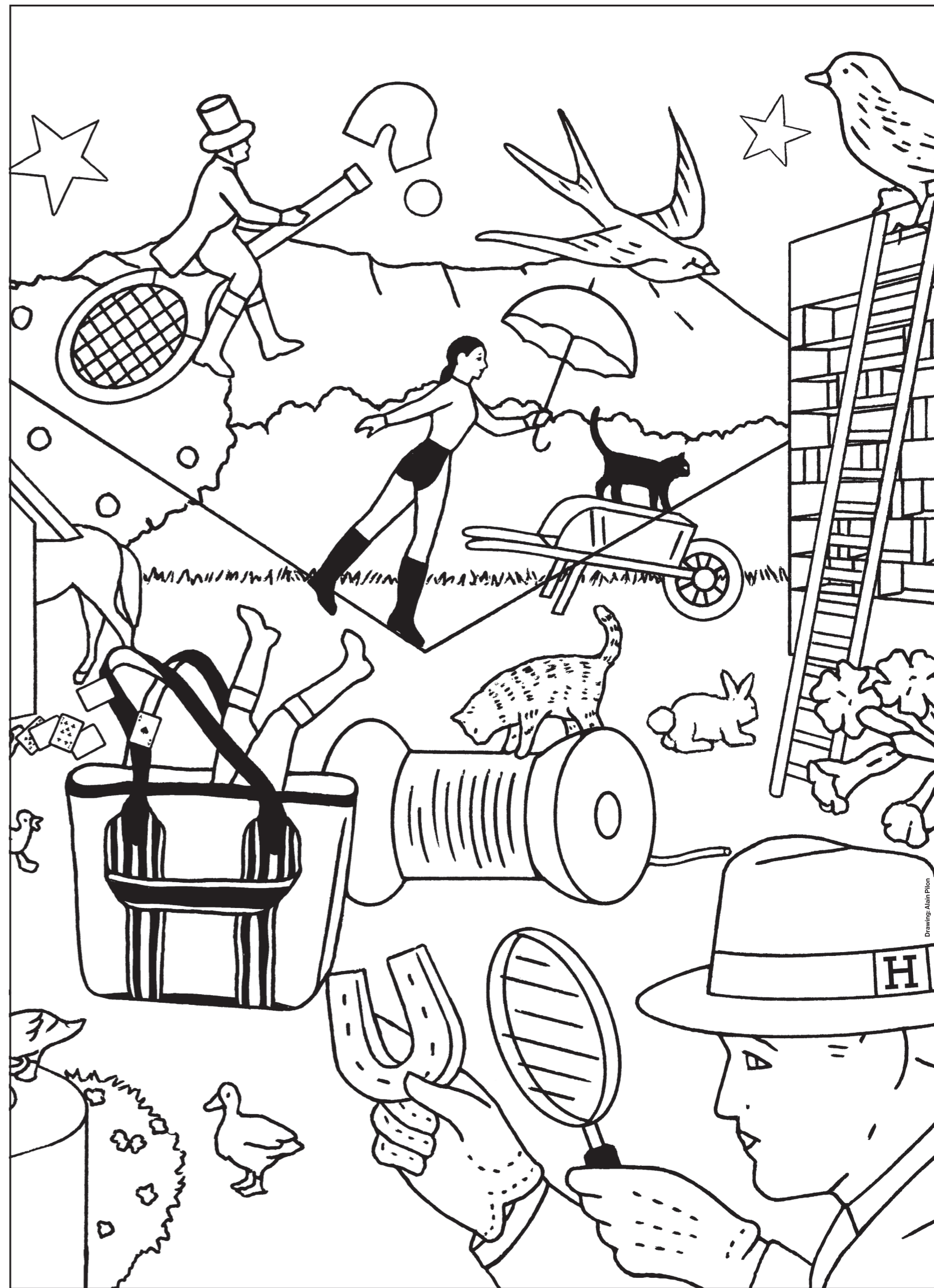


2026년 6월 6일부터 16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1 DDP)
무료 입장 티켓 예매하기



HERMÈS
PARIS



MYSTERY AT THE GROOMS'
2026년 6월 6일부터 16일까지

BECOME AN HERMÈS DETECTIVE



2026년 6월 6일부터 16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1 DDP)
무료 입장 티켓 예매하기



Get

The

List



Hermès
에르메스의 근원인 승마에서 영감을 받은 워치로 둥근 케이스와 등자 모양 비대칭 리그가 특징이다. 지름 30mm 스틸 케이스에 화이트 래커 다이얼, 독특한 모양의 아라비아숫자 인덱스, 브라운 컬러 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이썬 워치 5백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Qeelin
둔황 벽화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 울루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가운데에 아코야 진주로 포인트를 준 미디엄 사이즈 울루 링 6백98만원 7년.
문의 02-6905-3453



Chanel Watch
J12 화이트 세라믹 모델에서 새롭게 출시한 28mm 사이즈 모델. 다이얼에 1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아워 마커로 완성해 은은한 광채를 자랑한다. 가격 미정
샤넬 워치, 문의 080-805-9628



Chopard
아름다운 스톤의 눈부신 광채를 강조하는 다이아몬드 컷렉션 테크닉스. 18K 에타겟 화이트 골드와 36개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0.36캐럿으로 이뤄진 5개의 꽃잎으로 완성해 과하지 않은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1천5백86만원
쇼파드, 문의 02-2118-6085



Tiffany & Co.
1975년 아카이브 브레이슬릿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코닉한 T 모티브가 특징인 컬렉션의 링으로, 18K 화이트 골드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0.58캐럿을 세팅해 완성한 티파니 T1 링 가격 미정
티파니앤코, 문의 1670-1837



HUBLOT
올해 워치스 & 원더스에서 공개한 신제품으로 일반 세라믹보다 더 단단한 블루 세라믹 케이스에 새로운 HUB 1280 유니코 매뉴팩처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한 빅뱅 리로드드 블루 세라믹 3천만원대
워블로, 문의 02-540-1356



Jaeger-LeCoultre
1930년대 오리지널 여성용 리베르소 워치의 정교한 크기에서 영감을 받은 32.2×16.3×7.9mm 사이즈 스틸 케이스 위아래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하게 완성한 리베르소 클래식 모노페이스 오리지 1천2백80만원 예거 르쿨트르, 문의 1877-4201

TAG Heuer
39mm 그레이드 5 티타늄 케이스로 뛰어난 경량성과 견고함을 자랑하며, 다크 그린 컬러의 선레이 효과와 래커 처리 다이얼의 반짝임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인하우스 오토매틱 칼리버 TH20-11로 구동해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모나코 크로노그래프 1천3백19만원 태그하이어, 문의 02-3479-6021
에디터 상징민





Watches & Wonders 2026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워치스 & 원더스 2026은 올해 워치메이킹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무대였다. 약 66개의 브랜드가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각 매종의 미학과 기술력을 반영한 독립 부스에서 새로운 컬렉션과 향후 비전을 공개하며, 제네바 전역을 거대한 워치 플랫폼으로 변신시켰다. 신제품 공개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철학과 기술적 진보, 그리고 동시대 워치메이킹이 지향하는 가치가 교차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소재 혁신과 컴플리케이션의 진화 등 오늘날 럭셔리 워치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입체적으로 제시한 이번 워치스 & 원더스 현장을 <스타일 조선일보>가 직접 취재했다.



- 1 IWC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데이 & 나이트 어린 왕자 에디션. 2 제네바 도시 곳곳에서 박람회장을 상징하는 깃발을 찾아볼 수 있었다.
- 3 실제 레이싱카를 전시한 태그호이어 부스.
- 4, 10 열기구를 연상시키는 H. 모저앤씨 부스에서 레이서 피에르 가솔리가 신제품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 5 유연한 메탈 브레이슬릿으로 업그레이드 된 옐로 골드 실버 새틴 피니싱 다이얼을 매치한 까르띠에 산토스-뒤몽 워치.
- 6 약 6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한 워치스 & 원더스 2026.
- 7 IWC 부스를 방문한 레이서 조지 러셀. 8 예거 르쿨트르는 약 4m 높이의 소나무 열을 조형물을 중심으로 한 3개 층의 물임형 전시를 완성했다.
- 9 신작 소개와 함께 혁신적인 소재와 기술, 장인 정신 등을 보여준 오데마 피게.
- 11 피아제 부스를 찾은 전시원은 이날 스웬잉 페블즈 네크리스 등을 착용해 현장을 빛냈다.



워치스 & 원더스 2026은 신제품 발표의 장을 넘어 오늘날 워치메이킹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집약적으로 보여줬다. 역대 최대 규모인 66개 브랜드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높은 관심과 활발한 현장 분위기, 젊은 세대 컬렉터들의 적극적인 유입까지 더해지며 워치스 & 원더스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워치 행사로 자리매김했음을 실감하게 했다. 특히 대표적인 스위스 워치메이킹 매종인 오데마 피게의 참여는 행사의 상징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시계 축제에 활기를 더했다. 몽트뢰 재즈 클럽과의 협업을 비롯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기존 시계 전시의 형식을 벗어나 문화적 경험과 라이프스타일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전시 유형을 제시했고, 이는 제네바가 세계 시계 산업의 중심지로서 지닌 위상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혁신과 전통의 계승이라는 가치 역시 행사 전반을 관통하며 동시대 워치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하는 상징적 장으로 기능한 것이다.

올해는 기념비적인 해를 맞은 브랜드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롤렉스는 오이스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신작을 공개했고, 파텍칼페 역시 아이코닉한 노틸러스 탄생 5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소파드는 매뉴팩처 플리비에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L.U.C 컬렉션을 전개했으며, IWC는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와 파트리스상 20주년을 기념한 파일럿 워치 어린 왕자 에디션으로 브랜드의 서사를 이어갔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올해의 워치 트렌드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었다. 과거의 상징적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브랜드 탄생의 뿌리를 찾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고유의 디자인 DNA를 기반으로 새로운 컬인을 구축하는 등 헤리티지를 탐색하는 흐름이 두드러진 것이다. 까르띠에 역시 과거 파리 컬렉션을 재해석해 탄생시킨 까르띠에 프리베 컬렉션을 선보였으며, 튜더와 피아제는 초기 다이버 워치에서 출발한 헤리티지를 현대적인 비례와 구조 안에서 재창조하며 매종의 정체성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데 집중했다. 시각적 호를 또한 분명했다. 블루 다이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가장 강력한 컬러 코드로 자리하며 주요 매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었는데, 소파드와 피아제, 오데마 피게, 예르메스, 튜더 등은 신레이 브러싱과 그레인드 텍스처, 샌드 블라스트, 레커 레이어 등 다양한 마감 기법을 통해 각기 다른 결의 블루를 구현하며 개성을 뽐냈다. 컬러 면에서 블루가 대세였다면 다이얼 표현 방식에서는 스키텔렌 워치가 다수 등장했다. 예르메스는 대표 컬렉션 아쇼, H08을 스키텔렌으로 선보였으며, 위블로, 까르띠에도 자사 무브먼트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스키텔렌 워치를 출시했다. 소재 측면에서는 티타늄의 존재감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경량성과 특유의 질감을 바탕으로 태그호이어 모나코 같은 스포츠 워치뿐 아니라 바세론 콘스탄틴과 불가리처럼 티타늄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던 워치 매종의 모델에도 적극 활용됐다. 특히 불가리 옥토 피니시모는 총 10개 모델에 티타늄을 적용하며 초박형 워치메이킹의 기술적 정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케이스 사이드나 브레이슬릿에서는 좀 더 편안한 착용감과 알맞은 비율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까르띠에 산토스-뒤몽 컬렉션은 유연한 메탈 브레이슬릿을 추가해 훨씬 가볍고 손목에 부드럽게 감기는 착용감을 완성했으며, 예거 르쿨트르는 고성능 무브먼트와 인체 공학적 설계의 브레이슬릿을 결합한 일체형 브레이슬릿의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를 처음 선보이며 현대적 기준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워치를 제시했다.

스포츠 워치의 변화 또한 인상적이었다. 과거 틀워치 중심의 기능적 접근에서 벗어나 슬림한 프로포션과 유려한 케이스 라인, 통합형 브레이슬릿 구조를 바탕으로 일상성과 우아함을 동시에 갖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와 드레스 워치의 경계 역시 한층 유연해졌다. 스포츠와 모터 레이싱 선수들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신작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 레이싱 DNA를 핵심 정체성으로 삼아온 태그호이어는 한층 더 일찍 가벼워진 모나코를 선보였으며, 스포츠 브랜드 리복과 협업한 H. 모저앤씨 워치는 모던한 감각과 편안한 착용감을 강조했다. 그리고 스포츠 스타와의 협업을 꾸준히 이어온 위블로는 2명의 스포츠 스타와 함께한 새로운 방방 리코디드 컬렉션을 공개하며 스포츠 워치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현장에 초청된 유명 F1 레이서와 스포츠 스타의 존재감이 더해지며 과거부터 이어져온 스포츠와 워치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그들이 공유해온 문화가 더욱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층적 문화 공간, 팔레스포

행사장인 팔레스포 안팎에서는 장인 기술 시연과 교육 프로그램 등 체험형 콘텐츠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관람객에게 보다 깊은 몰입감을 제공했다. 제네바 시내에 조성된 워치메이킹 빌리지는 대중 참여형 공간으로 운영되며 도시 전체를 축제 분위기로 물들였고, 전통적으로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되는 목요일 밤 오프닝 이벤트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몰리며 제네바는 그 자체로 거대한 워치메이킹 무대로 변모했다. 올해 역시 팔레스포에는 세계적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지며 행사 전반에 활기를 더했다. 피아제는 작년에 이어 글로벌 엠베서더인 배우 전지현을 초청해 매종이 추구하는 우아함과 워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올해는 유독 F1 레이서들의 방문이 많았는데, 튜더 부스에는 레이싱 볼스 드라이버 아비드 린드블라드가 참석해 신제품을 직접 소개하며 관람객과 소통했고, IWC 부스에는 메르세데스-AMG 페트로 나스 F1 팀 소속 조지 러셀이 세계적인 스키 선수 아일린 구와 함께 방문해 열기를 더했다. 그 뿐 아니라 작년부터 몸집을 키우고 있는 H. 모저앤씨의 부스에는 현 F1 알파인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 피에르 가솔리가 방문해 많은 방문객을 불러모았다.

브랜드의 탄생과 역사적 뿌리를 탐구하고 이를 재해석한 신제품 워치가 많았던 올해답게 많은 매종은 신제품 발표를 넘어 각자의 유산과 장인 정신, 그리고 창의적인 디자인 세계를 입체적으로 연출한 공간으로 뒀다. 예거 르쿨트르는 워치메이킹이 시작된 곳이자 매종이 탄생한 쥐라산맥으로 돌아갔다. 방방 정지에서 영감받은 겨울 숲 콘셉트로 부스를 구성했으며, 발레 드 주 초기 정착민을 상징하는 장인들이 현장에 참여한 가운데 4m 높이의 소나무 열을 조형물로 중심으로 3개 층에 걸친 물임형 전시를 완성했다. 오데마 피게는 새로 오픈한 매뉴팩처에서 선보인 대규모 전시를 그대로 재현했다. 전시에서는 오데마 피게의 역사부터 현재까지 선보인 제품과 각종 헤리티지 피스를 선보였으며, 인그레이빙과 에나멜링 등 전통 공예 시연과 무브먼트 제작 과정 등을 재현하는 공간까지, 다양한 연출을 통해 공방의 작업 방식과 브랜드 세계관을 보다 풍부하게 드러냈다. 이처럼 다층적인 콘텐츠를 품은 워치스 & 원더스 2026은 단순한 산업 박람회가 아닌 라이프스타일과 문화적 경험의 장으로 확장됐으며, 동시에 세계 워치메이킹의 중심지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에디터 김하연(제네바 현지 취재)



CHANEL



Game, Start!

올해 워치스 & 윈더스에서 샤넬은 그들만의 게임으로 초대한다. 오토 오펀로제리 마스터피스를 시작으로 J12, 보이·프렌드, 프리미에르, 그리고 코드 샤넬까지. 게임을 주제로 샤넬이 재해석한 워치메이킹의 세계.

샤넬에 있어 작년은 J12의 해였다. 오묘한 매트 블루 컬러의 J12를 선보이며 블루 컬러 세라믹에 관련된 기술적 노하우를 널리 알린 것. 올해는 샤넬만이 할 수 있는 오토 쿼터즈 디자인 코드에 낱알이 발전하는 샤넬의 워치메이킹 기술, 그리고 샤넬 주얼리의 전반적인 스톤 세팅 기술을 소개하는 기회로 삼은 듯하다. 이번에도 역시 40여 가지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중심을 이루는 것은 샤넬 '코코 게임' 컬렉션이었다. 샤넬 워치메이킹 크리에이션 스튜디오 디렉터 아르노 샤스탱(Arnaud Chastaing)은 이번 신제품을 통해 게임 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한다. 라인, 블랙, 화이트 등 브랜드의 상징적인 코드가 담긴 14점의 타임피스는 시간을 자유롭게 다루며 그 흐름을 능숙하게 이끌어간다.

체스 보드
매년 워치스 & 윈더스에서 특정 테마 아래 특별한 워치 1점을 내놓는 샤넬 워치. 올해 오토 오펀로제리 마스터피스는 체스 게임을 테마로 했다. 체스 위 말들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화이트 골드, 세라믹, 다이아몬드로 정교하게 제작됐다. 16개의 블랙 체스 말은 스틸보다 7배 더 견고한 하이테크 소재인 세라믹으로 제작했으며, 화이트 체스 말은 화이트 골드 소재로 완성

하고 다이아몬드 디테일을 더했다. 이외에도 방돔 기둥과 킹을 표현하는 사자까지, 샤넬의 세계관이 반영된 정교한 미니어처 조각으로 제작해 예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체스 판의 주인공인 2개의 퀸은 가브리엘 샤넬로 표현했으며, 이 두 퀸이 워치 역할을 담당한다. 퀸 받침대 아래에 시계를 숨겨두고 있는 것. 퀸은 체인에 연결해 목걸이로도 착용 가능하다. 이 워치는 고정밀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하며, 단 1점만 제작되었다.

가브리엘 워치
가브리엘 샤넬 여사는 늘 샤넬에 영감이 되는 존재였지만, 올해 가브리엘 워치는 더 진보되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규칙을 파괴하듯 프레임과 다이얼을 벗어나 아이코닉한 포즈를 취하는 가브리엘 샤넬의 모습을 구현했을 뿐 아니라, 샤넬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독자적인 다이아몬드 세팅 기법을 적용한 아트 피스라 할 수 있다. 트윈드 세팅 기법으로 전체를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트윈드 패턴을 구현했다. 이는 샤넬 워치 매뉴팩처의 보석 세공 장인 2명이 열 번의 테스트를 거쳐 트윈드 직조 효과를 재현한 것이다. 지름 43mm에 고정밀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하며, 10개 한정판으로 제공한다.



J12 코코 게임

샤넬 워치메이킹 크리에이션 스튜디오 디렉터 아르노 샤스탱은 '게임'이라는 콘셉트를 표현하고자 과거 그래픽 게임의 픽셀화된 캐릭터에서 영감을 받은 마드모아젤을 제작했다. 그리고 이 마드모아젤은 초침 역할을 한다. 샤넬만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시계 디자인에 위트를 부여한 것. 이를 위해 카본 플레이트를 레이저 커팅해 마드모아젤 초침의 가벼움과 균형을 구현해냈다. 이는 샤넬 워치 매뉴팩처 장인들이 10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개발했다. 샤넬은 J12 코코 게임을 새롭게 선보이는 매트 블랙 세라믹 소재로 완성했으며, 베젤과 인덱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 베젤에는 바게트 컷 매트 블랙 세라믹 소재를 적용하고 인덱스는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버전, 화이트 세라믹으로 완성한 버전까지 총 3점 출시한다. 모두 지름 38mm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며,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셀프 와인딩 매뉴팩처 무브먼트 12.1로 구동한다.

보이·프렌드 코코 게임

이번 코코 게임 컬렉션에서 보이·프렌드 워치를 위해 샤넬이 선택한 모티프는 포커 카드다. 포커 카드 형태에 딱 맞는 직사각형 다이얼에 가브리엘 샤넬을 퀸 오브 하트의 모습으로 재현한 것. 아이코닉한 검은 테두리 장식의 트윈드 수트와 보터 햇, 레이어드한 진주 목걸이를 매치해 그녀의 블랙 & 화이트 조상을 완성했다.



1 2026 오토 오펀로제리 마스터피스는 체스 게임을 테마로 한 워치, 체스 보드. 2 가브리엘 샤넬 여사를 입체적으로 그려낸 가브리엘 워치. 3 매트 블랙 세라믹에 베젤을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J12 코코 게임 워치. 4 포커 카드로 재현한 보이·프렌드 코코 게임 워치. 5 블랙과 화이트 컬러의 대비가 매력적인 프리미에르 코코 게임 워치. 6 화이트 레더 가죽에 블랙 라이닝으로 세련된 매력을 선사하는 코드 코코 게임 워치.

화이트 레커 베젤 버전과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 버전, 두 가지로 출시하며 블랙 트리밍의 화이트 카프 스킨 스트랩으로 완성했다.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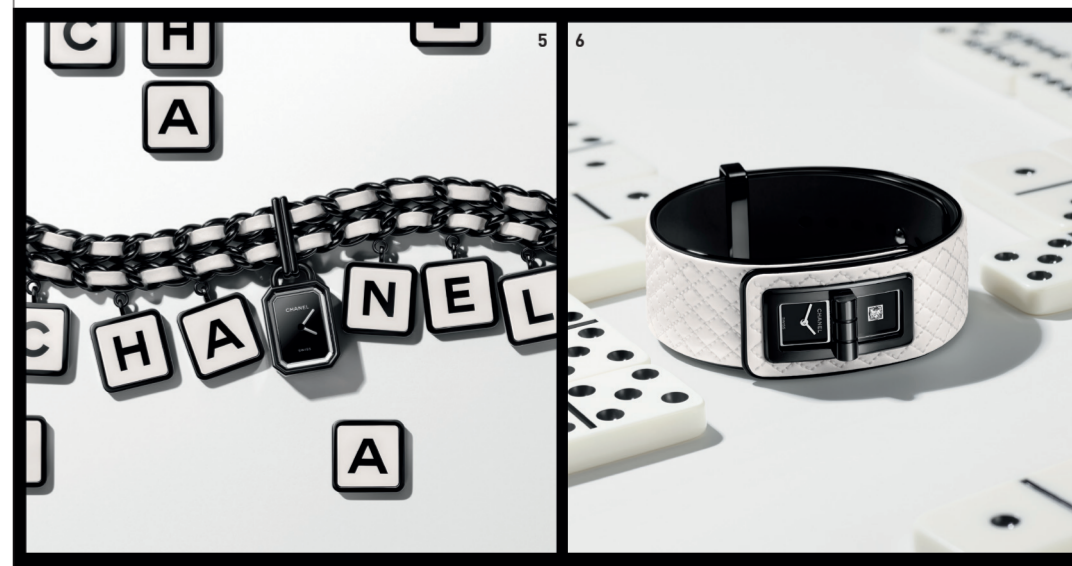
프리미에르 코코 게임

브레이슬릿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에르 라인의 코코 게임 워치. 블랙 코팅, 화이트 레커, 사파이어 크리스털을 결합해 완성한 6개의 참 장식이 손목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며 심플하면서도 아름다운 'CHANEL'이란 글자를 그려낸다. 하우스를 대표하는 블랙과 화이트 컬러로만 완성해 모던하고 클래식한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며, 화이트에 블랙으로 완성한 라인, 샤넬 백의 아이코닉한 퀼팅 백의 체인처럼 가죽을 엮은 듯한

브레이슬릿 등 특유의 요소를 가미했다. 이 역시 한정판으로 출시한다.

코드 코코 게임

샤넬 워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에서 가장 최근 선보인 코드 컬렉션의 워치로 도미노 게임 조각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했다. 화이트 컬러에 블랙 레더 라이닝을 더한 퀼팅 가죽 브레이슬릿에 블랙 코팅 스틸 케이스에는 2개의 블랙 레커 다이얼을 매치해 화이트와 블랙 컬러가 이루는 대비를 보여준다. 하나의 다이얼에서는 핸드를 시간을 표시하고, 다른 하나의 다이얼은 프리네스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했다. 고정밀 쿼츠 무브먼트로 구동하며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문의 080-805-9628 에디터 성장민





손목 위 예술을 빛는 시간

무려 1백60여 년 이상 위치와 주얼리 메이커로서 명맥을 이어온 쇼파드는 이번 위치스 & 원더스를 통해 새로운 타임피스를 선보이며 다시 한번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정교한 장인 정신과 배종의 유구한 미학에 현대적 감각을 덧입힌 이번 컬렉션은 각 시계에 고유한 개성을 부여하며 실용성과 예술의 경계를 한층 확장했다.

쇼파드는 1996년부터 스위스 플뢰리에(Fleurier)에 위치한 매뉴팩처를 운영하며 혁신적인 무브먼트 개발은 물론 퍼펙추얼 캘린더와 투르비용 등 고도의 위치메이킹의 기술력을 적용한 시계 제작까지 아우르고 있다. 또 하이 주얼리의 미학과 정교한 기술력을 결합해 독창적인 타임피스를 선보이기도 한다. 올해는 알파인 이글, 해피 스포츠, L.U.C, 다이아몬드 컬렉션에 각기 기술적 진보를 담은 신제품을 추가하며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롭고 화려한 라인업을 완성했다.

매뉴팩처를 향한 헌사, L.U.C

쇼파드는 플뢰리에 매뉴팩처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며 전설적인 L.U.C 타임피스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신작을 선보였다. 이번 에디션은 기

존 디자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지난 30년 간 축적해온 기술적 진보와 장인 정신을 정교하게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L.U.C 1860 크로노미터는 브랜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루센트 스틸 소재를 적용했다. 스크래치와 마모에 강한 동시에 특유의 깊은 광채를 지닌 이 소재를 전작과 동일한 36.5mm 비율의 케이스에 담아냈다. 다이얼에는 발-드-트라베르(Val-de-Travers) 지역에 흐르는 아뢰즈(Areuse)강에서 영감을 받은 블루 컬러를 적용했다. 빛과 암석, 수면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강의 모습을 구현해 빛과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장인이 빈티지 엔진 터닝 선반으로 새긴 핸드 기요세 선버스트 패턴과 새틴 브러싱 처리한 챌터 링, 폴리싱 화이트 골드 세브론 인덱

“L.U.C 1860은 L.U.C 컬렉션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타임피스입니다. 파인 위치메이킹을 향한 여정의 출발점이자, 30년 전 상상했던 클래식을 그대로 구현한 모델입니다”
칼-프리드리히 슈펠레 (쇼파드 공동 대표)



스, 도핀 헨즈가 조화를 이루며 다이얼의 완성도를 높였다. 날짜장 대신 6시 방향에 스몰 세컨즈를 배치해 대칭적인 균형감을 강조했으며, 블루 다이얼과 어우러지는 그레이 그레이인 카프스킨 스트랩으로 마무리했다. 가장 중요한 무브먼트는 1996년 최초의 매뉴팩처 칼리버를 기반으로 개선한 L.U.C 칼리버 96.40-L을 탑재했다. 두께 3.3mm의 초박형 셸프 와인딩 구조에 22K 골드 마이크로 로터를 결합했으며, 2개의 배럴을 포개는 쇼파드 트윈 테크놀로지를 통해 약 6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구현했다. 모든 부품은 제네바 실(Poinçon de Genève) 기준에 따라 수작업으로 마감됐다. L.U.C XPS 프러시안 블루 역시 매뉴팩처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모델이다. L.U.C 1860 크로노미터와 동일한 루센트 스틸 케이스를 적용했으며, 지름 40mm와 두께 7.2mm의 슬림한 비율에 L.U.C 96.12-L 칼리버를 장착했다. 다이얼은 17세기 베를린 상인들 사이에서 유래한 프러시안 블루 컬러로 완성했고, 브라운 카프스킨 스트랩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절제된 드레스 위치의 미학을 드러낸다. 선버스트 새틴 마감에 화이트 미닛 트랙과 6시 방향 스몰 세컨즈를 배치해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풍긴다. L.U.C 스트라이크 원은 5등급 티타늄 케이스를 적용해 경량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가공이 까다로운 소재임에도 쇼파드의 오랜 노하

우와 기술력으로 단일 티타늄 블록을 정밀하게 절삭하고, 수직 새틴 브러싱 마감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이 타임피스는 메시지 정각을 알려주는 '차임-인-패싱(Chime-In-Passing)' 기능을 갖추었으며, 특히 받은 모노블록 사파이어 공(Gong) 시스템을 통해 울림을 전달한다. 미닛 리피터와 유사한 원리로 작동하지만, 보다 맑고 풍부한 음량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다이얼 1시 방향 컷아웃을 통해 사파이어 공의 구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로즈 골드 플레이트 위에 새틴 컬러와 종전과 동일하게 다이얼 중앙의 허니콤 모티브 핸드 기요세 패턴을 더해 독특한 질감을 완성했다. 이 밖에도 육각형 허니콤 다이얼의 L.U.C 콰트로 스피릿 25와 월드 타임 기능을 갖춘 L.U.C 타임 트래블러 원까지 함께 공개하며 컬렉션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스포츠함과 우아함의 완벽한 조화, 알파인 이글

알파인 이글은 1980년 칼-프리드리히 슈펠레(Karl-Friedrich Scheufele)가 구상한 생 모리츠 모델의 그 아들 칼-프리트 슈펠레(Karl-Fritz Scheufele)가 재해석해 탄생한 컬렉션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와 배종의 기술적 정점을 동시에 보여주며 3대에 걸친 쇼파드의 유산을 이어간다. 이번 시즌 역시 알파인 이글 특유의 스포티한 에너지와 우아한 감각을 유지하면서 크로노



미터 수준의 정밀성과 독보적인 마감 완성도를 통해 컬렉션에 깊이를 더했다. 몬테 로사 핑크 다이얼로 주목받았던 초기 모델에 이어 이번 컬렉션의 중심에는 알파인 이글 41 XPS가 자리한다. 지름 41mm의 울트라-씬 위치는 루센트 스틸 소재로 제작해 매끄럽고 견고한 외관을 완성했으며, 다이얼에는 해 질 무렵 알프스 산 봉우리의 빛에서 영감을 받은 마운틴 글로 컬러를 적용했다. 이는 독수리의 총해를 연상시키는 사형 패턴과 조우해 알파인 이글 특유의 개성을 강조한다. 윤리적 화이트 골드 소재 헨즈와

1 매뉴팩처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완성한 L.U.C 1860은 36.5mm의 비율로 완성한 케이스에 핸드 기요세 선버스트 패턴의 블루 다이얼, 화이트 골드 세브론 인덱스와 도핀 헨즈, 그리고 6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가 조화를 이룬다. 2 다이얼 1시 방향의 컷아웃 면과 중앙의 허니콤 모티브 핸드 기요세 패턴이 특징인 L.U.C 스트라이크 원 티타늄. 3 40mm 케이스와 7.2mm 두께의 슬림한 구조로 완성한 L.U.C XPS 프러시안 블루 위치는 블루 다이얼과 브라운 카프스킨 스트랩의 조화가 돋보이며, 칼리버 96.12-L을 탑재했다. 4 41mm 케이스와 8mm 두께를 갖춘 울트라-씬 위치, 알파인 이글 41 XPS는 두께 3.3mm의 셸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탑재했으며, 6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5 '셰이드 오브 우드'라 불리는 브라운 그레데이션이 특징인 알파인 이글 41 XP CS 로즈 골드. 6 알파인 이글 론 블루는 로마숫자와 바 인덱스, 화이트 골드 시침과 분침을 적용했으며, 베젤과 케이스는 8개의 스크루로 견고하게 고정해 가벼운 충격에 대응하는 스포츠 위치의 기능을 갖췄다.

인덱스에는 슈퍼루미노바®를 적용해 낮과 밤 모두 우수한 가독성을 확보했으며, 무브먼트는 L.U.C 1860과 동일한 L.U.C 칼리버 96.40-L을 기반으로 한다. 두께 3.3mm의 셸프 와인딩 구조에 22K 골드 마이크로 로터와 트윈 테크놀로지를 결합해 약 6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구현했다. 브레이슬릿 역시 착용감을 고려해 새롭게 설계했다. 케이스와 연결된 5열 링크 구조가 유려한 라인을 강조하며, 버클 쪽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형태를 통해 실루엣을 더욱 슬림하게 연출한다. 트리플 폴딩 클래프스는 별도 도구 없이 최대 5mm까지 조절 가능해 온도 변화나 활동량에 따라 유연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또 다른 하이라이트인 알파인 이글 41 XP CS 로즈 골드는 전작 플래티넘 모델의 계보를 잇는 진화형 모델이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헨즈까지 모두 윤리적 로즈 골드 소재를 사용했으며, 지름 41mm와 두께 8mm의 균형 잡힌 비율을 갖췄다. 다이얼에는 나무의 나이테에서 영감을 받은 '셰이드 오브 우드(Shades of Wood)' 브라운 그레데이션을 적용해 깊이 있는 분위기를 완성했다. 내부에는 쇼파드 자사 무브먼트인 L.U.C 칼리버 96.42-L을 장착해 슬림한 구조에도 약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시·분·초만으로 구성된 미니멀 디자인을 통해 다이얼 본연의 미감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2-2118-6085 에디터 김하얀

HUBLOT



정교한 기술과 장인 정신의 결정체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대담한 감각의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해온 위블로가 올해 워치스 & 윈더스에서 또 한번 빅뱅 컬렉션의 새로운 얼굴을 선보였다. 하이주얼리 위치의 화려함부터 컬러 스톤이 만들어내는 감각적인 무드, 그리고 더욱 진화한 오픈워크 위치메이킹까지. 기본기에 충실했던 지난해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위블로는 빅뱅이라는 이름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해낸다.

지난해 빅뱅 탄생 20주년을 맞아 위블로는 컬렉션의 본질과 아이덴티티를 재정비하는 데 집중했다. 과감한 소재와 독창적 디자인, 그리고 강렬한 존재감이라는 빅뱅의 핵심 코드를 현대적으로 다듬으며 브랜드의 근간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한 것. 올해 워치스 & 윈더스에서 위블로는 이를 발판 삼아 혁신을 이어나갔다. 이를 통해 기술적 진보는 물론, 보다 다층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빅뱅 컬렉션의 세계를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변화와 혁신은 늘 위블로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였다. 그러나 올해 워치스 & 윈더스에서 마주한 빅뱅 컬렉션은 단순한 혁신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 지난해에는 빅뱅 탄생 20주년을 기념하며 컬렉션의 본질과 기본기에 집중한 업그레이드 모델들을 선보였다면, 올해는 그 견고한 기반에 보다 대담하고 감각적인 상상력을 덧입혔다. 기술과 디자인, 하이주얼리와 메카니컬 워치,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빅뱅 컬렉션이 얼마나 다채로운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증명할 것이다. 수십 캐럿의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빅뱅 임팩트 원 밀리언'부터 자수정 특유의 신비로운 컬러로 위블로만의 감각을 보여준 '빅뱅 조이풀', 그리고 오픈워크 유니코를 더욱 진화시킨 '빅뱅 리리드'까지. 이번 컬렉션은 단순히 새로운 시계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빅뱅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가능성과 감성의 스펙트럼을 한층 넓혔다. 강렬함 속에 섬세함을, 화려함 속에 정교한 위치메이킹을 동시에 담아낸 위블로. 이번 워치스 & 윈더스의 빅뱅 컬렉션은 왜 여전히 위블로가 가장 대담하고 매력적인 브랜드 중 하나인지 다시금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정교한 위치메이킹과 하이주얼리의 임팩트, 빅뱅 임팩트 원 밀리언

위블로는 위치메이킹과 주얼리 기술의 퓨전을 유니크 피스로 선보여왔다. 2007년 원 밀리언 달러 빅뱅을 시작으로 블랙 캐비어 뱅, 빅뱅 유니코 오토 주얼리 컬렉션, 3백만 달러 규모의 빅뱅 투르비용, 그리고 5백만 달러에 이르는 작품까지, 다이아몬드 세팅 타임피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여온 위블로는 하이엔드 워치에 보석을 세팅하는 노하우를 터득해온 것. 빅뱅 임팩트 뱅 탄생 1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빅뱅 임팩트 원 밀리언은 이 모든 노하우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총 44.6캐럿에 달하는 약 5백 개의 다이아몬드를 바늘과 펜시 킷 등 독창적인 형태로 커팅해 센트럴 플라잉 투르비용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배치했다. 또 인버저블 세팅과 클로드 세팅을 함께 적용해 입체적인 효과를 만들어냈다. 지름 45mm로 완성한 빅뱅 임팩트 원 밀리언은 폴리시드 18K 화이트 골드도 제작했으며, 30m 방수

“**유니크한 빅뱅 임팩트 뱅 탄생 1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빅뱅 임팩트 원 밀리언 기술적 완성도와 디자인을 결합해 입체적으로 구현된 과감한 보석 세팅은 수백만 달러 규모 작품의 계보를 이어간다**”



기능을 갖추었다. 더불어 위블로는 스피릿 오브 빅뱅에서도 역사상 최초로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 세팅을 공개한다. 2016 빅뱅 임팩트 뱅 이후 10년, 깨진 조각 모티프를 정교하게 맞물리게 배치해 완성한 화려한 다이얼이 특징인 이 작품을 세라믹과 사파이어로도 구현한 것. 이로써 위블로는 또 한번 한계를 뛰어넘었다. 스피릿 오브 빅뱅 임팩트 뱅 지름 42mm 올 블랙 세라믹, 사파이어 & 오스뮴, 그리고 다이아몬드 세팅 사파이어, 세 가지 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많은 연구 개발을 거쳐 정교한 구조 안에서 완벽히 설계한 이 마스터피스들은 위블로의 오토 오로로지리와 하이주얼리의 경계를 다시 한번 확장한다.

퍼플의 매력, 자수정을 담은 빅뱅 조이풀

지난해 다양한 컬러 스톤으로 여성을 사로잡았던 빅뱅 조이풀 컬렉션에 '퍼플'을 추가했다. 베젤에 36개의 자수정을 세팅한 빅뱅 조이풀 스틸 퍼플은 강인함과 직관을 담아내며 부드러운에서도 분명한 힘을 지닌 존재감을 전한다. 일반적으로 보라색은 가시광선 중 가장 높은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직관과 인식, 그리고 한 단계 높은 힘을 상징하며 열정과 이상, 감정과 통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 따라서 이 신비스러운 퍼플



컬러 워치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좋은 에너지를 모아주는 시계가 될 것이다. 컬러 스톤은 보석을 넘어 감정을 일깨우는 힘을 지니며, 행운을 부르는 의미로도 작용하는데, 위블로는 이러한 컬러 스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 지름 33mm 스틸 케이스에 아이코닉한 H 스크루로 완성했으며, 반짝이는 화이트 다이얼과 화이트 라이닝의 퍼플 컬러 러버 스트랩이 자수정과 조화를 이뤄 완성된 높은 디자인을 선보인다. 40시간 파워 리저브를 갖춘 HUB1120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대담함과 장인 정신의 아이콘, 빅뱅 리리드

1980년 골드와 러버의 결합으로 탄생한 위블로는 2005년 빅뱅으로 워치 산업을 뒤흔들었으며, 2010년 첫 인하우스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 유니코를 통해 기계식 분야에서 독립성을 확보했다. 그 후로 장인 정신을 브랜드 핵심 가치로 삼으며 무브먼트부터 소재와 디자인까지 기존 틀을 과감히 깼다. 이러한 소재와 위치메이킹에 대한 끝없는 도전과 혁신을 철학으로 위블로는 2026년 중요한 이정표가 될 빅뱅 리리드를 선보인다. 이 컬렉션은 오픈워크 빅뱅 유니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컬렉션으로, 내부부터 새롭게 설계한 기존 DNA는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에너지와 진화된 메카니즘, 더욱 날카로운 디자인, 그리고 강렬해진 정체성을 갖는다. 새로운 빅뱅 리리드의 가장 큰 특징은 성능은 물론 가시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했다는 점이다. 먼저 동 세대 통합 크로노그래프 중 가장 진보한 모델인 유니코 칼리버를 장착했으며, 여섯 가지 특허 혁신 기술을 통해 차별화했다. 백래시를 보정하는 듀얼 오실레이션 클러치, 흔들림을 방지하는 크로노그래프 핸드 시스템, '제로 마찰' 래치 휠 차단 장치, 정밀한 레이트 조정 시스템, 그리고 큰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시간 조정 시스템이 바로 그것. 이번 리리드는 이 혁신적인 유니코 칼리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중심에 배치하고, 컬러와 대비를 통해 구조를 선명하게 보여주도록 디자인되었다. 44mm 케이스에 두 부분으로 나뉜 베젤과 함께 정교한 아키텍처를 구현하며 소재와 마감의 역동적 조화를 가능하게 했다. 컬러로 강조된 6시 방향의 칼럼 휠과 8시 방향의 듀얼 오실레이션 클러치는 매뉴팩처 플라잉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의 핵심을 보여준다. 3시 방향 크로노그래프 카운터는 시각적 명료성을 높이고 날짜창은 4시와 5시 사이로 이동시켰다. 또 서로 다른 질감과 표면을 활용한 멀티레이어 다이얼로 깊이감과 기술적 매력을 더했다. 스트랩은 H 패턴 스틸이 들어간 패브릭 느낌의 러버 스트랩과 클래식 블랙 러버 스트랩으로 제공하며, 폴딩 버클과 특허 받은 원 클릭 시스템을 적용해 완성했다.

- 1 총 44.6캐럿에 달하는 약 5백 개의 바게트와 펜시 킷 다이아몬드를 독창적으로 세팅해 완성한 빅뱅 임팩트 원 밀리언.
- 2 빅뱅 임팩트 원 밀리언의 센트럴 플라잉 투르비용을 중심으로 세팅한 다이아몬드의 모습.
- 3 사파이어와 오스뮴 소재로 완성한 스피릿 오브 빅뱅 임팩트 사파이어.
- 4 묘한 매력을 지닌 퍼플 컬러 자수정으로 완성한 빅뱅 조이풀 스틸 퍼플.
- 5 일반 세라믹보다 더 단단한 블랙 세라믹으로 완성한 빅뱅 리리드 올 블랙.
- 6 티타늄과 블랙 세라믹을 조합해 완성한 빅뱅 리리드 티타늄 세라믹.
- 7 위블로만의 강도 높은 특수 블루 세라믹으로 완성한 빅뱅 리리드 블루 세라믹.
- 8 빅뱅 리리드 다크 그린 세라믹.
- 9 위블로가 세계 최초로 소개한, 스크래치에 강한 18K 골드 소재의 빅뱅 리리드 매직 골드.



위블로는 빅뱅 리리드에도 소재에 대한 전문성을 심분 발휘해, 소재 기술과 상징적인 해를 기념한다. 세계 최초로 소개한, 스크래치에 강한 18K 골드로 특유의 청동빛 광채가 특징인 매직 골드가 15주년을 맞이한 것. 또 일반 세라믹보다 300비커스(vickers) 더 단단해 내구성이 높은 세라믹은 올 블랙, 블루, 다크 그린 등 세 가지 모델로 선보였다. 그중 올 블랙 에디션은 20년 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콘셉트를 기념하며, 블루와 다크 그린 모델은 위블로의 풀 컬러 하이테크 세라믹 기술을 반영했다. 마지막 모델은 티타늄과 블랙 세라믹을 결합해 완성했다. 항공 등급 경량 티타늄과 기술적 세라믹을 조합해 강성을 확보했으며, 티타늄과 블랙 세라믹을 적용해 2013년 첫 번째 빅뱅 유니코 모델과 동일한 구성으로 선보인다. 모두 HUB 1280 유니코 매뉴팩처 셀프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플라잉백 칼리버로 구동하며, 약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크로노그래프, 혁신의 새로운 챕터

워치스 & 윈더스 2026에서 태그호이어는 모터 스포츠와 함께 구축해온 브랜드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크로노그래프의 방향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타임피스를 선보이며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전문성을 한단계 더 끌어올렸다. 이는 단순한 기능적 진보를 넘어 정밀 계측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가 지향하는 혁신적 비전을 하나로 압축한 결과물이다. 이제 태그호이어가 제시하는 새로운 크로노그래프의 세계를 마주할 시간이다.



레이싱 DNA를 담은 태그호이어의 공간

태그호이어는 메종을 대표하는 모나코를 중심으로 크로노그래프의 의미와 브랜드의 정체성을 이번 부스를 통해 다시금 조명했다. 입구에는 2개의 대형 LED 스크린과 함께 태그호이어의 레이싱 헤리티지를 상징하는 2대의 레이스 카를 배치했다. 하나는 현대 모터 스포츠 퍼포먼스의 정점을 보여주는 오라클 레드볼 레이싱 F1® 카이고, 다른 하나는 모나코 컬렉션과 깊은 연결성을 지닌 포르세 917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천장 구조물과 연결된 거대한 TH80-00 무브먼트 오브제가 자리하며, 태그호이어가 추구하는 기술적 비전을 직관적으로 드러냈다. 부스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크로노그래프 웰(Chronograph Well), 초기 크로노그래프부터 현대 무브먼트에 이르기까지, 태그호이어가 구축해온 기술 진화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구성이었다. 이와 함께 마련된 태그호이어 랩(TAG Heuer LAB)에서는 무브먼트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각 공간은 크로노그래프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태그호이어가 기계식 혁신의 경계를 어떻게 확장해왔는지 보여주는 장치로 작용했다.

모나코 에버그래프의 역사적 진화

오늘날 태그호이어를 대표하는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는 단연 크로노그래프다. 1백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적해온 워치메이킹 헤리티지는 올해 공개된 태그호이어 모나코 에버그래프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기계식 구조와 모나코 특유의 스쿼어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메종은 물론 현대 워치메이킹 전반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태그호이어의 크로노그래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60년 창립 이후 태그호이어는 정밀한 시간 계측과 내구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해왔으며, 20세기 초에는 맥박 측정 스케일을 적용한 크로노그래프와 자동차용 대시보드 타이머를 선보이며 존재감을 키웠다. 이어 1916년에는 1/100초 단위까지 측정 가능한 혁신적인 스톱워치 마이크로그래프를 개발하며 정밀 계측 분야의



“모나코 에버그래프는 외관부터 내부 메커니즘에 이르기까지 기술적 진보를 상징한다. 5년에 걸친 연구와 개발 끝에 완성된 칼리버 TH80-00은 메종의 실험 정신과 기술력 역량의 정수로, 하나의 아트 피스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이후 수많은 기술적 이정표를 거치며 메종은 크로노그래프 제작에 역량을 집중했고, 2017년에는 최초의 인하우스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호이어 02를 선보였다. 이는 이후 칼리버 TH20으로 진화하면서 현재 태그호이어 크로노그래프 컬렉션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 세기 이상 크로노그래프 개발에 집중해온 태그호이어에 있어 이를 다시 근본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은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태그호이어 모나코 에버그래프를 구동하는 칼리버 TH80-00은 메종의 기술력과 실험 정신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태그호이어 랩이 전면 개발한 유연 구조 기반의 독창적인 컴플라이언트(Compliant) 메커니즘을 적용해, 가능한 구조는 물론 크로노그래프 작동 시 전달되는 감각까지 새롭게 정의한다. 기존 크로노그래프 구조에서 핵심 역할을 하던 레버와 스프링 시스템을 과감히 제거하고, 2개의 유연한 바이-스테이블(Bi-Stable) 컴포넌트가 이를 대체한다. 하나의 장치는 스타트와 스톱 기능을 담당하고, 다른 하나는 리셋 기능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크로노그래프 탄생 이후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전통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해석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고정밀 리가(LIGA) 공정을 통해 구축한 이 메커니즘은 작동 전환 시 더욱 빠르고 정확한 반응성을 구현하며, 기계식 크로노그래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TA-카본스프링 오실레이터를 탑재한 무브먼트는 뛰어난 항자성과 정밀도를 확보했으며, 5Hz 고진동 설계와 약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췄다. 결과적으로 칼리버 TH80-00은 혁신적인 구조를 통해 향상된 내구성과 정밀성을 실현하며, 태그호이어가 추구해온 '목적 있는 혁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디자인 역시 이러한 기술적 진보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태그호이어 모나코 에버그래프의 외형은 태그호이어 모나코 스플릿 세컨즈 크로노그래프를 기반으로 보다 인체 공학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킨 결과물이다. 실루엣은 1969년 오리지널 모델 1133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무브먼트와 케이스 구조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좌측에 배치된 크라운과 길게 설계된 무브먼트 구조를 드러내는 사파이어 케이스 백까지, 모두 모나코 특유의 디자인을 발전시킨 요소다. 동시에 인체 공학적 설계를 통해 착용감 역시 한층 향상됐다. 이번 모델은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1969년 등장한 1133B를 연상시키는 블루 악센트 티타늄 모델과 브랜드의 레이싱 DNA를 강조한 레드 악센트의 블랙 DLC 코팅 티타늄 모델이다. 특히 블루 모델은 미국 배우이자 레이싱 드라이버였던 스티브 맥퀸이 착용하며 상징적 존재가 된 모나코의 헤리티지를 모던하게 계승한 것이다.

- 1 워치스 & 윈더스 2026에서 단연 눈길을 끈 태그호이어 전용 부스. 공간 전반에 브랜드가 축적해온 레이싱 헤리티지를 강하게 투영해 모터 스포츠와 워치메이킹의 연결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었다.
- 2 과감한 40mm의 티타늄 사각 케이스, 좌측에 배치한 크라운, 그리고 한층 정교하게 다듬은 푸셔 디자인은 진화된 칼리버 TH80-00을 담기 위한 구조적 해석으로 완성했다.
- 3, 4 모나코 에버그래프의 핵심은 독창적인 컴플라이언트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칼리버 TH80-00이다. 개발에만 약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 5 모나코 크로노그래프는 정사각 형태를 보다 정제된 비례로 다듬은 39mm 티타늄 케이스에 3시와 9시 방향의 서브카운터, 6시 방향 날짜창을 갖추었으며, 인하우스 칼리버 TH20-11을 장착했다.
- 6 티타늄과 로즈 골드를 결합한 투톤 케이스가 특징인 블랙 다이얼 버전.



사각의 혁명, 모나코 크로노그래프

1960년대는 스위스 워치메이킹이 기술적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다. 전통적인 수동 와인딩 중심에서 벗어나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빠르게 확산되며 새로운 흐름이 형성됐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태그호이어는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개발에 착수한다. 뷰렌(Buren)의 마이크로

로터 기반 칼리버와 듀보아-데프라즈(Dubois-Dépraz)의 크로노그래프 모듈을 결합해 완성한 칼리버 11은 1969년 3월 3일 공개된 뒤 상업적으로 출시되며 워치메이킹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다. 베이스 무브먼트와 크로노그래프 모듈을 결합한 구조적 설계에 따라 크라운은 케이스 왼쪽에 배치했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모나코 컬렉션의 상징적 디테일로 남아 있다. 태그호이어 모나코는 멀리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대담한 사각 케이스와 기하학적 실루엣으로 당시 워치메이킹업계에 강렬한 인상을 안겼다. 특히 출시 당시 보기 드물었던 선명한 블루 다이얼은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을 극적으로 부각시키며 모나코만의 아이덴티티를 완성했다. 독특한 디자인과 기술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해온

태그호이어 모나코 크로노그래프는 올해 다시 한번 재해석됐다. 50여 년 전 오리지널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신작은 모나코 특유의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한층 역동적인 무드를 전한다. 날카롭게 다듬은 케이스 라인은 이전보다 더욱 입체적으로 강조됐으며, 사파이어 크리스털 역시 정사각형에 보다 가까운 형태로 진화했다. 39mm 케이스는 5등급 티타늄으로 제작해 가벼우면서도 뛰어난 내구성을 제공하고, 섬세하게 이어지는 곡선 마감은 스포티한 분위기 속에서 고급스러운 균형감을 보여준다. 다이얼 구성 역시 현대적으로 다듬어 가독성을 고려한 텍스트 배치와 대비감을 강조한 서브 다이얼을 통해 정보 전달력을 높이고, 모나코 특유의 레이싱 감성을 강화한다. 무엇보다 이번 모델의 핵심은 새로운 인하우스 무브먼트 TH20-11에 있다. 메종의 대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TH20-00을 기반으로 개발한 것으로 3시와 9시 방향 서브카운터, 6시 방향 날짜창 구성과 함께 약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영화 《르망(Le Mans)》에서 스티브 맥퀸이 착용한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시그니처 블루를 비롯해, 브리티시 레이싱 컬러를 반영한 다크 그린, 그리고 블랙 티타늄과 로즈 골드 조합한 블랙 모델로 구성했으며, 여기에 새롭게 디자인한 5등급 티타늄 풀링 클래스프 스트랩을 매치해 더욱 향상된 착용감과 미학적 완성도를 구현했다. 문의 02-3479-6021 에디터 김하얀

Keyword 1 New Bracelet

최종시계에서 손목시계로의 전환과 함께 등장한 스트랩과 브레이슬릿은 손목시계라는 개념을 완성한 핵심 요소다. 특히 하이엔드 위치일수록 브레이슬릿의 완성도에 공을 들이는데, 올해 이 브레이슬릿에 혁신을 가져온 브랜드가 몇 있다.



산토스-뒤몽 옐로 골드

Watches & Wonders | CARTIER

까르띠에는 아이코닉한 산토스-뒤몽에 새로운 디테일의 브레이슬릿을 더해 재해석했다. 하드 스톤 다이얼과 블루 카보숑 용두를 새롭게 적용했으며, 메시 구조를 연상시키는 브레이슬릿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1.15mm 두께의 유연한 링크는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며 뛰어난 착용감을 제공한다. 이는 1920년대 메종이 선보인 브레이슬릿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오랜 헤리티지와 동시대적 감각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시계는 가로 43.5mm, 세로 31.4mm, 두께 7.3mm의 슬림한 비율을 갖췄으며, 약 30m 방수를 지원한다. 무브먼트는 매뉴얼러 워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옴시다인 다이얼에 옐로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조합한 버전, 실버 색틴 피니싱 다이얼과 플래티넘 브레이슬릿, 실버 색틴 피니싱 다이얼과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까지, 총 세 가지로 선보인다. 문의 1877-4326



Watches & Wonders | BVLGARI

손목을 휘감는 뱀의 형상을 통해 주얼리와 워치메이킹의 결합을 드러내는 불가리의 세르펜티 투보 가스 스타드 캡슐 컬렉션. 주얼리의 시그니처, 스타드 모티프를 브레이슬릿 전반에 입체적으로 적용해 유려한 곡선 구조와 강한 텍스처 대비를 형성하며 세르펜티 특유의 조형적 긴장감을 더한다. 총 4종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구성된 이번 컬렉션은 골드와 스틸의 조합으로 구조적 흐름을 만들어내며, 다이아몬드 세팅 다이얼을 비롯한 섬세한 디테일로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이러한 요소들은 세르펜티의 유연한 실루엣과 아우러지며 브랜드를 대표하는 아이코닉로서의 존재감을 공고히 한다. 문의 02-6105-2120

세르펜티 투보가스 스타드 캡슐



Watches & Wonders | JAEGER-LECOULTRE

에저 르쿨트르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 컬렉션은 1백90여 년에 걸친 메종의 유산과 약 80년에 이르는 매뉴팩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제된 디자인과 고성능, 인체 공학적 착용감을 조화롭게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1973년에 선보인 마스터 마리너 크로노미터에서 영감받아 일체형 브레이슬릿과 정교한 케이스 마감이 어우러지며, 선레이 브러싱 다이얼 위로 펼쳐지는 그라데이션 컬러가 시각적 깊이를 더한다. 컬렉션은 날짜 디스플레이와 퍼페추얼 캘린더 등 각기 다른 컴플리케이션을 갖춘 세 가지 모델로 구성된다. 그중 크로노미터 퍼페추얼 캘린더는 12시 방향의 월과 연도 표시를 비롯해 3시 방향의 요일, 9시 방향의 날짜, 6시 방향의 문페이즈 인디케이터 등을 통해 균형 있는 풀 캘린더 디스플레이를 완성했다. 컬렉션에 탑재한 칼리버 868은 윤년을 자동 계산해 2100년까지 별도의 조작 없이 정확한 날짜를 표시한다. 시계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18K 핑크 골드 케이스, 두 가지로 선보이며, 블루 그레이 또는 브론즈 컬러 다이얼을 적용해 소재와 컬러에 따라 서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문의 02-6905-3998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 퍼페추얼 캘린더



Keyword 2 Artistic Dial

'다이얼은 시계의 얼굴이다'라는 말은 다이얼이 시간을 표시하는 영역을 넘어, 시계의 가치와 미학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요소임을 의미한다. 브랜드의 정체성과 기능적, 미학적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때로는 예술 작품에 가까운 표현 방식으로 메종의 디자인적 언어를 담아내기도 한다.

Watches & Wonders | PIAGET

올해 워치스 & 웬더스에서 공개한 타임피스 가운데 이러한 다이얼의 미학을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준 모델은 피이제의 라임라이트 갈라 워치다. 뱀 비늘을 연상시키는 패턴에 오렌지 컬러의 그랑 피 에나멜을 적용한 다이얼은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하며, 주변을 풍성하게 감싸는 다이아몬드와 스페르타이트 가닛 세팅은 타오르는 불꽃을 연상시킨다. 다이얼과 동일한 패턴을 인그레이빙한 브레이슬릿은 조형적 완성도를 더욱 끌어올리며, 메종 특유의 유려하고 대담한 실루엣은 전통적인 워치 디자인의 틀을 벗어난 독보적인 우아함을 완성한다. 컬렉션은 스테인리스 스틸 패턴 브레이슬릿과 오렌지 에나멜 다이얼을 조합한 모델, 데코 펠리스 브레이슬릿과 다이얼을 적용한 버전까지, 총 두 가지로 선보인다. 문의 1877-4275



라임라이트 갈라

Watches & Wonders | ROLEX



오이스터 퍼페추얼 36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36은 브랜드가 '오이스터 스틸'이라 명명한 고내식성 스틸 소재를 적용했으며, 강렬한 그래픽 패턴의 다이얼이 특징이다. 브랜드명을 이루는 알파벳 각각에 다양한 컬러를 입혀 경쾌하면서도 리드미컬한 느낌을 완성했다. 특히 이 다이얼은 컬러를 한 층씩 순차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제작해 높은 정밀도를 요구한다. 롤렉스 특유의 미학적 코드와 정교한 다이얼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약 열 가지 색상의 패드 프린팅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복잡한 공정을 거쳐 완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현한 독창적인 컬러와 광채는 브랜드의 창의성과 다이얼 메이킹에 담긴 장인 정신을 더욱 강조한다. 문의 02-310-5366

Keyword 3 Deep Diver

다이버 워치 마니아들에게 희소식. 올해 유독 다양한 다이버 혹은 다이버 워치 감성을 지닌 신제품이 다수 공개되었다.

Watches & Wonders | PANERAI

파네라이는 시계업계에 다이버 워치라는 개념이 자리 잡기 훨씬 전부터 이탈리아 왕립 해군을 위한 시계와 계측 장비를 제작해온 메종으로, 기능적 정확성과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을 전제로 한 설계 철학을 일관되게 이어왔다. 올해 워치스 & 웬더스에서 선보인 다이버 워치 역시 이러한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완성됐으며, 루미노르 PAM01731은 1960년대 루미노르 디자인을 오마주한 모델로, 44mm의 쿼터형 케이스와 매트한 토포코 컬러 다이얼, 슈퍼루미노바®를 적용한 핸즈, 그리고 플랫한 크라운 프로텍팅 브리지를 갖추었다. 이를 통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도록 비율을 다듬으면서도 브랜드 고유의 역사적 실루엣은 그대로 유지했다. 수동 무브먼트 P6000으로 구동하며 약 72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약 300m 방수 성능을 제공한다. 파네라이의 다이버 워치는 메종의 아이디어 워크숍(Laboratorio di Idee)에서 엄격한 수중 테스트를 거치며 철저하게 검증된다. 베이지 스티칭 다크 브라운 카프 리더 스트랩과 동일한 러버 스트랩을 제공한다. 문의 02-2118-6256

루미노르 PAM01731

Watches & Wonders | AUDEMARS PIGUET

오데마 피게의 로열 오크 오프쇼어 다이버는 2021년에 처음 공개된 이후, 올해 세 가지 버전으로 다시 선보이며 수중과 지상 모두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생동감 있는 컬러 조합은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며, 특히 블랙 다이얼에 터퀴즈 러버 스트랩을 매치한 모델과 청록색 다이얼 버전은 각각 다른 인상을 준다. 그중 메가 태피스리 패턴의 블랙 다이얼에 핑크 컬러 포인트를 준 모델은 상대적으로 보기 드문 구성으로 더욱 강한 인상을 남긴다. 42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기반으로, 메가 태피스리 다이얼과 2개의 블랙 세라믹 크라운, 0-15분 구간에 핑크 컬러를 적용한 블랙 회전식 내부 베젤이 조화를 이룬다. 여기에 18K 골드 핸즈와 아워 마커에는 야광 코팅을 적용해 깊은 수심에서도 높은 가독성을 확보했다. 3시 방향 날짜창과 약 60시간 파워 리저브, 300m 방수 성능을 갖춘 셀프 와인딩 칼리버 4308로 구동한다. 첨단 기술과 전통적인 마감 기법을 결합한 이번 다이버 에디션은 스포츠 워치의 기준을 확장하려는 오데마 피게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문의 02-543-2999



로열 오크 오프쇼어 다이버 42mm

Keyword 4 Timeless Blue

시계업계에서 블루는 단순히 파란색 다이얼을 의미하지 않는다. 드레스 워치부터 스포츠 워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컬러 가운데 하나로, 블랙과 함께 유행을 크게 타지 않아 선호도가 가장 높은 다이얼 색상으로 통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워치업계에서는 '블루'가 강세다.

Watches & Wonders | HERMÈS

대표적으로 에르메스는 다양한 블루 워치를 선보였는데, 아소 사마르칸드(Arceau Samarcande)는 이러한 블루 다이얼의 미학에 매종의 근원인 말을 담았다. 1978년 앙리 도리니(Henri d'Origny)가 디자인한 것으로, 둥근 케이스와 승마용 등자에서 영감을 받은 비대칭 러그가 특징이며 에르메스의 승마 헤리티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은은하게 빛나는 블루 다이얼은 생-루이 크리스탈 공방의 유리 장인들이 제작한 크리스탈에 말 머리 형태의 오픈워크 장식으로 완성했으며, 이를 통해 독점 설계한 스퀘레트 메카니컬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H1927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름 38mm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자리 잡은 무브먼트는 미닛 리피터 기능을 품고 있으며, 투명하고 맑은 사운드를 구현한다.

문의 02-542-6622



아소 사마르칸드

Watches & Wonders | TUDOR

튜더의 블랙 베이 54 라인인 브랜드 최초의 다이버 워치 7922를 참고한 모델로, '튜더 블루'라는 이름 아래 새롭게 공개됐다. 사파이어 클러의 선레이 브리시드 다이얼은 튜더의 역사적 헤리티지를 환기하며, 빛의 각도에 따라 다층적인 색감을 형성한다. 37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오리지널 비율을 유지하며, 1969년부터 이어져온 스노플레이크 핸즈와 60분 단방향 회전 베젤이 조화를 이룬다. 여기에 자체 제작 칼리버 MT5400을 장착해 약 7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200m 방수 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초기 튜더 다이버 워치의 특징인 기능 중심의 설계를 재해석한 것이 특징으로, 베젤의 전통적인 해시 마크를 과감히 배제했다. 1950년대 도전을 이어가던 초기 다이버 워치에서 영감을 받아 기능 중심의 설계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또 퀵 릴리즈 클래스프를 적용해 착용 편의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문의 02-310-1621



블랙 베이 54 블루

Keyword 5 Chronograph Code

시계의 핵심 기능인 정확도와 시간 측정에 대한 노하우 및 기술력을 선보이기 좋은 크로노그래프, 워치의 기원, 탄생으로 돌아간 브랜드가 많았던 만큼 크로노그래프 기능 워치를 다시 한번 선보인 브랜드가 다수를 이뤘다.

Watches & Wonders | TAG HEUER

태그호이어의 아이콘으로 자리해온 모나코가 또 다시 진화를 맞이했다. 1969년 세계 최초의 사각 방수 크로노그래프로 등장한 모나코는 최초의 상업용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 칼리버 11을 탑재하며 당시 어떤 시계와도 다른 혁신을 제시했다. 50여년 전 출시된 오리지널 1133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모델은 모나코 특유의 상징적인 스웨이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무브먼트와 케이스의 균형감에 집중했다.

모나코 에버그라프 블랙 DLC 코팅 티타늄



투명 다이얼과 좌측 크라운에 걸어진 푸셔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40mm 5등급 티타늄 케이스는 보다 인체 공학적인 구조로 재설계됐다. 무엇보다 이번 컬렉션의 핵심은 5년에 걸쳐 개발한 컴플라이언트 크로노그래프 메카니즘을 적용한 칼리버 TH80-00이다. 스타트·스톱·리셋 기능과 연결된 레버와 스프링 구조를 제거하고, 이를 2개의 유연한 바이-스테이بل 컴포넌트로 대체해 보다 혁신적인 작동 구조를 완성했다. 여기에 뛰어난 항자성과 정밀도, 70시간 파워 리저브를 구현해 태그호이어의 기술적 역량을 입증했다.

문의 02-3479-6021

Keyword 6 Beyond Universe

워치메이킹의 혁신은 천체를 정복하는 데 있다. 올해 유독 제네바의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담은 워치를 대거 선보이며 브랜드 각자의 혁신적 기술력을 뽐냈다.

Watches & Wonders | IWC

특히 IWC는 하늘을 넘어 우주라는 공간으로 이동했다. 앞으로 있을 우주여행에 최적화된 워치를 제작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 차세대 우주정거장 개발을 진행 중인 기업 바스트(Vast)와 협업해 선보인 첫 우주 비행용 워치, 파일럿 벤처러 버티컬 드라이브가 그 주인공이다. 장갑을 착용한 우주복 차림의 우주 비행사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크라운을 사용하지 않는 혁신적인 회전 베젤 시스템, 케이스 측면 로커(rocker) 스위치 조작을 통한 무브먼트 와인딩, 홀타임 또는 미션 타임 설정 기술, 24시간으로 표시되는 시간 등 우주 비행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적용했다. 더불어 지구 중력의 4배에 달하는 최대 가속도, 극심한 온도 변화에도 견디는 극한의 견고함을 갖춘 세라타늄(Ceratanium)을 사용한 것도 매우 혁신적인 행보. 이는 모두 바스트의 까다로운 테스트를 마쳤다. 문의 1877-4315



파일럿 벤처러 버티컬 드라이브



Watches & Wonders | ROGER DUBUIS

올해 로저드뷔에서 선보이는 타임피스에는 전부 하늘의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았다. 인류가 별을 관측하고 달력을 만들어온 역사를 워치메이킹 언어로 재해석한 것. 이 타임피스들은 시간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구 너머에 존재하는 움직임과 아름다움에 경의를 표한다. 그중 액스칼리버 바이-레트로그레이드 퍼페추얼 캘린더는 워치메이킹에서 가장 고난도 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퍼페추얼 캘린더의 기술력을 반영한 워치다. 로저드뷔의 시그니처 바이-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것이 특징인데, 오일과 날짜 인디케이션이 타원형 스케일을 따라 이동한 뒤 각 주기가 끝나는 순간 출발점으로 되돌아온다. 월별 일수 차이, 윤년 주기까지 반영해 시간의 흐름을 정교하게 추적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2100년까지 정확한 날짜를 표시한다. 무브먼트 역시 업그레이드된 칼리버 RD850을 장착했다. 지름 40mm 18K 핑크 골드 케이스로 선보인다. 문의 02-3479-1403



엑스칼리버 바이-레트로그레이드 퍼페추얼 캘린더



6105G-001

Watches & Wonders | PATEK PHILIPPE

파텍필립에서 이번에 선보인 6105G-001은 우주 모듈에서 영감을 받은 워치다. 지름 47mm 케이스에 제네바에서 바라본 하늘을 묘사한 셀레스티얼(Celestial) 다이얼은 미네랄 글라스 디스크 2개와 메탈라이즈드 사파이어 글라스 디스크 1개 등 총 3개의 디스크를 겹쳐 완성한 것으로, 천문 시계를 미래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다이얼 가장자리에 위치한 날짜 디스크는 붉게 바니시 처리한 해머 형태 핸드로 날짜를 표시하며, 동시에 각각의 눈금 위에서 얇은 화이트 바니시 핸드 2개를 통해 일출 및 일몰 시간을 가리킨다. 'X' 형태로 속을 비운 블랙 컴포지트 스트랩은 러그가 보이지 않는 독창적인 고정 시스템을 적용해 케이스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특허를 획득한 화이트 골드 폴드 오버 클래스프를 마감했다. 이 워치는 5년 이상의 개발 기간과 6개의 특허 출원을 거쳐 완성한 칼리버 240 C LU CL LC50로 구동한다. 문의 02-6905-3339

Watches & Wonders | ZENITH

크로노그래프는 기본적인 시각 표시 기능에 더해 특정 구간의 경과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컴플리케이션이다. 대개 케이스 측면의 푸시 버튼을 통해 작동하며, 시지·정지와 리셋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제니스는 세계 최초의 일체형 오토매틱 고진동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엘 프리메로'를 통해 워치메이킹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메종으로 평가된다. 이를 기반으로 한 크로노마스터 리바이벌 A384 트로피컬은 토노형 케이스의 오리지널 A384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로, 과거 도면을 바탕으로 비율과 구조를 충실히 복원한 것이 특징이다. 37mm 스테인리스 스틸 토노형 케이스에 화이트 레커 다이얼을 적용하고, 브라운 톤의 서브다이얼과 타키미터 스케일을 매치해 빈티지 감성을 강조했다. 각면 처리한 아플리케 인덱스와 핸즈에는 슈퍼루미노바®를 적용해 가독성을 확보했다. 레드 컬러의 크로노그래프 초침은 다이얼 위에서 강한 시각적 포인트를 형성하며, 중심에는 5Hz 고진동 엘 프리메로 400 칼리버를 장착해 0.1초 단위 측정이 가능하다. 약 50시간 파워 리저브를 갖추었으며,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을 통해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2-3479-1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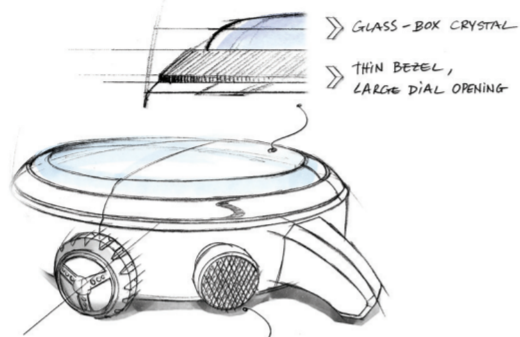
Keyword 7 Sport Spirit

때려야 될 수 없는 하이엔드 워치메이킹과 럭셔리 스포츠의 관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럭셔리 카 레이싱과 스포츠 혹은 레전더리 스포츠 선수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위치를 선보였다.



Watches & Wonders | CHOPARD

올해도 쇼파드는 밀레 밀리아 컬렉션에서 신제품을 선보였는데, 이는 전설적인 이탈리아 내구 레이스이자 엔초 페라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레이스라 칭한 레이싱 경기인 밀레 밀리아(Mille Miglia)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이다. 쇼파드는 여기서 1988년부터 공식 월드 스폰서이자 타임커퍼로 활동해왔다. 올해 공개한 새로운 '밀레 밀리아 클래식 크로노그래프'는 역사적인 세월의 흔적을 연상시키는 의도적인 웨더링 마감이 특징. 여기에 메종 최초로 높은 경도와 뛰어난 스크래치 저항성을 자랑하는 루센트 스틸™(Lucent Steel™)에 다이아몬드 라이크 카본(DLC) 코팅을 적용했다. 여기에 진동하는 세라믹을 활용해 표면을 미세하게 마모시키는 트리보피니싱(tribofinishing) 공정을 결합했다. 지름 40.5mm에 L.U.C 무브먼트로 작동하며 단 1백 피스 한정으로 판매한다. 문의 02-3479-1808



Watches & Wonders | H. MOSER & CIE.

독립 시계 브랜드에서 메인 스트림으로 진출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H. 모저앤씨. 여느 워치 메이커들과는 다른 창의적인 스타일로 자신만의 색을 구축하고 있는 이 메종에서 올해 독특한 위치를 출시했다. 바로 스포츠 브랜드 '리복'과 협업해 제작한 '스트림라이너 펌프(Streamliner Pump)'다. 1989년 출시한 버튼을 눌러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의 리복 펌프(Pump) 운동화에서 영감을 받아 케이스 왼쪽에 오렌지색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버튼을 장착했다. 이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약 1시간 이상의 파워 리저브가 충전되는 식. 이 독특한 '펌핑'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 HMC 500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수동 칼리버로 재설계했다. 새로운 HMC 103은 지름 30mm, 두께 4.5mm의 슬림한 구조를 갖췄으며, 74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매트한 단조 석영 석유를 사용한 케이스 소재 역시 독창적이다. 블랙 DLC 코팅 버전과 화이트, 두 가지로 출시한다. 문의 02-6905-3363

스트림라이너 펌프 레퍼런스 6103-2200



Watches & Wonders | HUBLOT

위블로는 이번 해에 새로운 리로디드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전설적인 2명의 스포츠 스타와 협업해 완성한 워치 2점을 선보였다. 그중 첫 번째 워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와 함께 2백 피스 한정판으로 선보이는 빅뱅 리로디드 우사인 볼트 타임피스다. 이는 우사인 볼트와 위블로 파트너십 15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2016 리우 올림픽에서 그가 기록한 트리플 금 메달 달성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지름 44mm에 새틴 피니시드 및 폴리시드 블랙 세라믹으로 완성했으며, 6시에서 8시 방향 사이에 그가 세운 100m 세계기록 9.58초를 담은 6-5-8 숫자, 그의 상징적 포즈를 연상시키는 번개 형태의 크로노그래프 초침, 그의 모토 'Anything is Possible. Don't Think Limits' 문구를 새긴 18K 옐로 골드 베젤 등 우사인 볼트를 상징하는 디테일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다른 하나인 빅뱅 리로디드 킬리안 음바페 역시 축구 선수인 그의 야망과 철학 등을 워치 디테일로 녹여냈으며, 2백 피스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전부 HUB 1280 유니코 매뉴팩처 셀프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플라야백 칼리버로 구동한다. 문의 02-540-1356



빅뱅 리로디드 우사인 볼트



빅뱅 리로디드 킬리안 음바페

Keyword 8 Compact Impact

또 하나의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기술력이라 할 수 있는 소형화. 작은 사이즈에 많은 기능을 담거나 기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이즈를 줄이는 작업은 고난도의 기술력과 오랜 워치메이킹 노하우를 요한다. 올해 역시 소형화 작업을 통해 워치메이킹의 한계에 도전한 워치 메종이 눈에 띄었다.

Watches & Wonders | VACHERON CONSTANTIN

무브먼트 소형화에 오랜 헤리티지와 노하우를 지닌 바세론 콘스탄틴 역시 또 한번의 혁신을 통해 칼리버 1120의 두께 2.45mm를 넘어선 2.4mm의 새로운 울트라-씬 칼리버 2550을 선보였다. 7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완성했으며, 더 얇아진 두께에도 무려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이는 정에서 매우 기록적이고 놀라운 성과다. 메종은 이 놀라운 무브먼트를 950 플래티넘 소재의 지름 39.5mm 오버시즈 셀프 와인딩 울트라-씬 모델에 장착해 선보인다. 이는 2016년 출시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울트라-씬 레퍼런스 2000V보다 작아진 사이즈로, 지금까지 생산된 오버시즈 모델 중 가장 슬림한 모델로 등극했다. 다이얼은 매력적인 새틴 컬러 러커 다이얼을 매치했으며, 벨벳 마감 기법을 적용한 페리페럴 마넛 트랙으로 완성해 모던함과 클래식의 미학을 선사한다. 문의 1877-4306



오버시즈 셀프-와인딩 울트라-씬



Watches & Wonders | A. LANGE & SÖHNE



작년 한번의 소형화를 거쳐 지름 34mm, 두께 6.4mm의 '1815' 위치를 출시한 랑에 운트 죄네. 올해는 매뉴얼 캘린더와 문페이스 기능까지 겸비한 지름 36mm, 두께 9.8mm의 삭소니아 매뉴얼 캘린더(Saxonia Annual Calendar)를 선보인다. 랑에 운트 죄네 메종답게 클래식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섬세한 미닛 스케일, 막대형 아틀리케, 랜싱 형태의 핸즈 등으로 우아하게 완성했다. 새로운 자동 와인딩 무브먼트 L2071 칼리버는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캘린더 디스플레이는 30일과 31일을 자동으로 인식한다. 문페이스는 1백 22.6년 동안 조정할 필요 없고, 10시 방향의 푸시 버튼으로 편리하게 조정 가능하다. 핑크 골드 에 그레이 다이얼 버전과 화이트 골드에 아르장테(argente) 컬러 다이얼 버전으로 출시한다. 문의 02-3479-1349

Keyword 9 Mystique Allure

여성용 손목시계가 등장하기 전 혹은 여성이 파티나 연회에서 시계를 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시절에 제작한 시크릿 워치. 현재는 주얼 워치 중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여러 브랜드에서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Watches & Wonders | VAN CLEEF & ARPELS

반클리프 아펠에서도 매년 시크릿 위치를 대표하는 루도 시크릿(Ludo Secret) 위치를 선보인다. 1934년 탄생한 메종의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벨트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워치부터 브레이슬릿까지 브리케트 링크로 정교하게 조립한 유연한 메시 구조로 섬세하게 직조한 듯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옐로 골드 위에 메종의 트롬프뢰유 기법으로 세팅한 사파이어는 영롱한 반짝임을 부여하며 주얼 워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다이얼은 머더오브펠로 완성하고 12시 마커에 사파이어를 추가 세팅해 포인트를 주었으며, 스위스 퀴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문의 1877-4128



루도 시크릿 워치



너드 까멜리아 커프 너드 까멜리아 임브로이더드 커프

Watches & Wonders | CHANEL

매년 각종 주얼 위치를 선보이는 샤넬 워치에서는 이번에 가브리엘 샤넬이 사랑했던 꽃인 까멜리아와 리본 모티프를 결합해 완성한 5점의 시크릿 워치 컬렉션을 선보인다. 그 이름은 바로 '너드 까멜리아(Noeud de Camélia)'다. 각각의 워치는 샤넬의 워치메이킹 기술력뿐 아니라 주얼리 메티에 다르(métiers d'arts), 쿠티르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데, 블랙 그로그랭(gravé) 디테일을 묘사한 레드 보 브레이슬릿부터 르사주(Lesage) 공방 장인들이 시퀀으로 수놓은 브레이슬릿,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그로그랭 디테일을 완성한 브레이슬릿과 링까지. 정인 정신으로 빚어낸 아름답고 우아한 아트 피스를 확인할 수 있다. 가운데 까멜리아 플라워를 열면 숨겨져 있던 워치가 드러나는 방식. 4개의 브레이슬릿과 1개의 링은 전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하며 고정형 퀴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문의 080-805-9628



맥 러스터글래스 스테인글래스 립 린트
#포쉬 핏 끈적이지 않고 맑게 밀착되는, 마치 유리알을 머금은 듯한 제형이 특징이다. 덧바를수록 은은한 윤기가 차오르며, 컬러 역시 한층 선명하게 발색된다. 3ml 3만8천원. 문의 1588-3819
 _by 에디터 김하얀

GLOW MIST

크리스찬 디올 뷰티 NEW 디올
백스테이지 에어플래시 미스트
 뿌리는 순간 은은하게 퍼지는 디올 퍼퓸의 장미 향이 리프레시를 돕는다. 메이크업한 얼굴에 사용해도 번짐 없이 강력한 고정력을 선사한다. 100ml 5만4천원대.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성정민



나스 퀴드 아이세도우 #스프링 피버
 초콜릿 브라운 베이스에 골드 펄을 가미한 '갈라파고스'를 중심으로, 매트부터 스파클링까지 다양한 텍스처를 담은 아이세도우. 은은하게 블렌딩해 깊이감 있는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4.4g 7만5천원. 문의 080-564-7700
 _by 인턴 에디터 김지현

조 말론 런던 토마토 리프 핸드 워시
 손을 씻는 순간 토마토 잎의 싱그러운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젤 타입 핸드 워시. 글리세린과 메도폼 시드 오일을 함유해 피부를 부드럽게 세정하는 동시에 촉촉하게 정돈해준다. 250ml 7만9천원. 문의 1644-3753
 _by 에디터 김하얀

Editor's Pick

수분감과 은은한 광채를 위한 픽서 미스트부터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할 립 & 치크, 감각적인 향의 프레이그런스까지. 지금 주목해야 할 이달의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YOON JI YOUNG

누그레이 세모 랩 립앤치크 #밀키피치 랩 우유에 복숭아 과즙을 섞은 듯한 피치 코랄 컬러의 크림 치크. 세라미이드와 바쿠치올 등 스킨케어 성분을 함유해 끈적임 없이 탭글한 속광을 연출한다. 5.6g 1만6천원. 문의 070-8810-1984 _by 인턴 에디터 김지현



CYRUS WOODY

쿠오카 자몽브릴레 오 드 퍼퓸 상큼한 자몽과 부드러운 코코넛 크림이 어우러진 시트러스 우디 향의 프레이그런스. 초여름에 산뜻하게 즐기기 좋아 데일리 향수로 제격이다. 50ml 15만원. 문의 02-2205-5559
 _by 에디터 신정임



에르메스 뷰티 레 탱 에르메스 네일 에나멜 58 로즈 아네논 푸른빛 은은하게 감도는 마젠타 핑크 컬러의 네일 에나멜. 손끝에 포인트를 주는 원 컬러 네일로 연출하기 좋다. 15ml 8만원대. 문의 02-310-5174
 _by 에디터 신정임



샤넬 레 베쥬 마스카라 블랙 단단한 타원형 브러시로 한 번만 터치해도 풍성한 볼륨감과 컬링 효과를 선사한다. 여러 번 덧발라도 움짐 없는 텍스처에 만족. 6g 6만5천원. 문의 080-805-9638
 _by 에디터 성정민

로에베 센티드 캔들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의 크림미함과 고소한 피스타치오 향이 어우러진 센티드 캔들. 은은하게 포근한 분위기를 전해 지친 하루의 끝, 기분 전환용으로 제격이다. 170g 14만9천원. 문의 02-2088-8587
 _by 에디터 신정임



* 김하얀(40대 지성), 성정민(30대 미용사), 신정임(30대 미용사), 김지현(20대 지성)



1 쇼파드 워터 뒤 다이아몬드 오닉스 에디션
 쇼파드는 올해 다이아몬드 베젤이 인상적인 워터 뒤 다이아몬드 오닉스 에디션을 공개했다. '빛과 그림자'의 유희라는 주제 아래 블랙 오닉스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인덱스, 블랙 레더 스트랩으로 조화롭게 구성했다. 쇼파드 09.01-C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했으며, 이를 감싸는 쿠션형 케이스가 컬렉션 특유의 우아한 실루엣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문의 02-2118-6085

2 그라프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티크 오픈
 그라프가 롯데백화점 인천점에 새로운 부티크를 오픈했다. 약 133㎡(40여 평) 규모로 선보이는 이번 공간은 키네틱 아트에서 영감받아 설계됐으며, 매장 내부는 청자색을 중심으로 구성해 브랜드 특유의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강조했다. 문의 02-3213-2194

3 시몬스 매트리스 쿨링 패드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가 여름을 앞두고 쾌적한 수면 환경을 위한 냉각 침구를 제안한다. 매트리스 쿨링 패드는 리버서블 제품으로, 한쪽 면에는 냉각 섬유가 포함된 피부에 닿는 즉시 체온을 빠르게 낮춰주며, 다른 한쪽 면은 60수 면 100% 소재로 부드러운 포근함을 선사한다. 문의 1899-8182

4 포멜라토 포멜라토, 혁신적인 주얼리 메종
 포멜라토가 6월 24일부터 필레 드 도쿄에서 브랜드 최초의 파리 전시 (포멜라토, 혁신적인 주얼리 메종)을 선보인다. 전시는 스타일, 장인 정신, 컬러, 여성성을 키워드로 메종의 상징적인 디자인과 독보적인 주얼리 세계를 조명한다. 문의 0030-8321-0441

5 위블로 5+5 워런터
 위블로가 2026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모든 워치(스마트 워치 및 공식 인증 중고 모델 제외)에 대해 5년 동안 국제 워런터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위블로티스타 프로그램에 워치를 등록하면, 추가 5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블로티스타 회원은 세



계적 이벤트 초청, UEFA 경기 티켓, 프라이빗 디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즐길 수 있다. 문의 02-540-1356

6 아르투스 베르트랑 메달 플뤼 데투알 옐로 우골드 23 Dia 23mm
 아르투스 베르트랑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부티크 오픈을 기념하며 '메달 플뤼 데투알 옐로우골드 23 Dia 23mm'를 공개했다. 18K 옐로 골드 메달에 정교하게 세팅한 23개의 다이아몬드가 돋보이며, 메종의 고유한 저부조 기법을 통해 새긴 해성과 별들이 자아내는 입체감이 특징이다. 문의 02-3467-8394

7 샤넬 워치 J12 38mm & 33mm
 샤넬 워치가 J12 블루 세라믹 컬렉션을 정규 라인으로 편입하고 38mm와 33mm, 2가지 모델을 추가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단방향 회전 베젤과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적용했으며, 매트 블루 다이얼에는 로동 도금 처리한 아라비아숫자 인덱스와 핸즈를 매치해 지난해 모델과 차별화했다. 문의 080-805-9628

8 키린 울루울루 컬렉션
 키린이 글로벌 브랜드 엠베서더 임윤아와 함께한 2026 S/S 시즌 주얼리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부드러운 생동감, 로맨스, 절제된 우아함이라는 4가지 무드를 주얼리로 풀어낸다. 따뜻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울루울루(WuluWulu) 링'과 '울루 가든(Wulu Garden) 링'을 새롭게 선보였다. 문의 02-6905-3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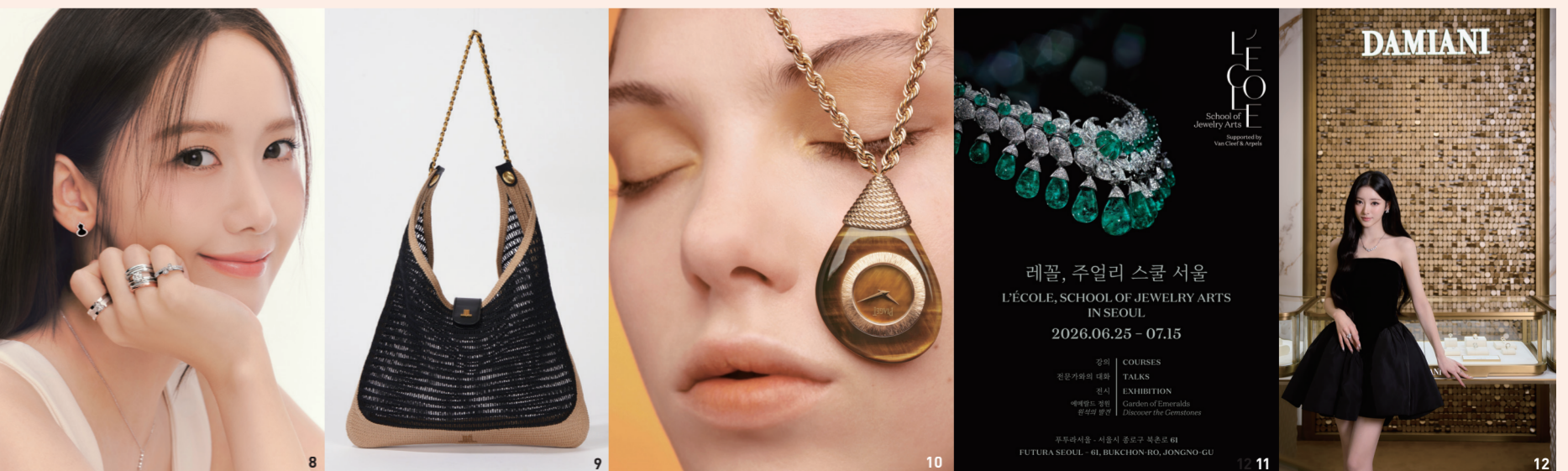
9 랑방컬렉션 배색 라피아 메시 체인 솔더백
 랑방컬렉션이 내추럴한 라피아 소재와 메시 짜임이 조화를 이루는 배색 라피아 메시 체인 솔더백을 선보인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실루엣으로 편안한 무드를 연출하며, 골드 체인 스트랩과 마그네틱 클로징 디테일로 실용성까지 갖췄다. 문의 1800-5700



10 피아제 스윙잉 페블즈 네크리스
 피아제의 스윙잉 페블즈는 조각들을 담은 유려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1974년 선보인 기모노 포켓 워치에서 영감받았다. 타이거 아이, 베르다이트, 피터사이트 등 3가지 오퍼멘탈 스톤을 적용했으며, 각 페넌트마다 하나의 스톤만 사용해 특별함을 배가했다. 스톤 내부에 무브먼트를 정교하게 배치하고 트윈스트 골드 체인을 더했으며, 피아제의 심세한 기술력이 돋보인다. 문의 1877-4275

11 반클리프 아펠 레골 주얼리 스쿨 서울 캠퍼스
 반클리프 아펠의 후원으로 설립된 레골 주얼리 스쿨이 6월 25일 첫 한국 캠퍼스를 개설한다. 이번 캠퍼스에서는 주얼리의 역사, 젠스톤의 세계, 주얼리 제작 기법 노하우라는 3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총 1백2개의 다채로운 세션과 4개 분야 전문가와의 대화, 2개 특별 전시를 선보이며 주얼리 문화를 경험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1877-4128

12 다미아니 신세계 센텀시티점 리뉴얼 오픈
 다미아니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부티크를 리뉴얼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미야오 엠바 안나가 방문해 자리를 빛냈다. 부티크 내부는 이탈리아 프리미엄 가구와 대리석, 벨 에포크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은 디테일과 무라노 유리공예 브랜드 베니니의 오브제로 장식해 다미아니만의 예술적 감각을 표현했다. 문의 02-6204-1924



* 김하얀(40대 지성), 성정민(30대 미용사), 신정임(30대 미용사), 김지현(20대 지성)

사라진 말들을 찾아주세요...



Drawing: Alain Pilon

MYSTERY AT THE GROOMS'

2026년 6월
6일부터 16일까지



BECOME AN HERMÈS DETECTIVE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1 DDP)
무료 입장 티켓 예매하기

